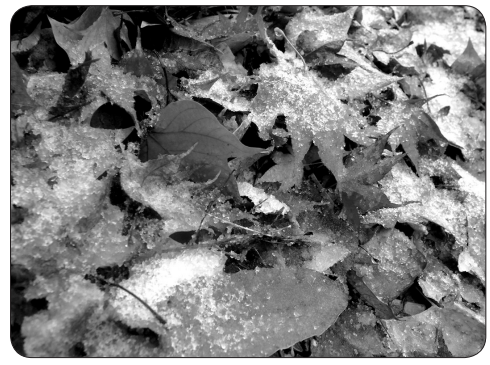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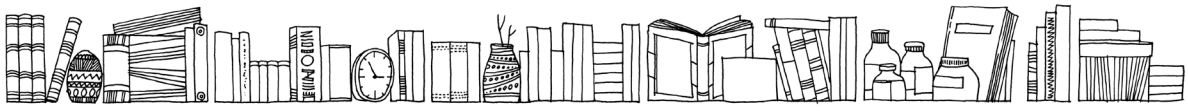
유난히 일찍 찾아온 겨울 탓에 낙엽이 사라지기도 전에 눈이 쌓였습니다. 지난 5년 고통이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가 나 버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눈 밑의 사라질 낙엽처럼 금방 아물겠지요? 길고 긴 선고리의 겨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편집장 하한





차 례

여는 글	2	우리 곁에 당연해진 것들
특집: 졸업	4	기린반, 길이길이 기억되리
	6	졸업하기 전 알고 가자, 간디인 순위공작단!
	8	세상에서 하나뿐인 졸업식!
	10	졸업하는 그들의 토킹 베이비~
	12	이정표가 되어 줄 이곳
	14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두고
	16	졸업
간디인 톡톡	18	간디에서 둥지 틀기
	20	간디학교 1년을 보내며…
	23	논문이 끝나서 아쉽다
	26	일상
반가워요 후원인	28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대들
간디IN이 만난 사람	32	우리는 새터민~!!
배움 속으로	35	김장 축제, 그 맛있는 현장 속으로
우리끼리	50	고립이 아닌 자립을 위해
간디 만평	54	학교 구조 추운 곳, 따뜻한 곳
사설	55	날도 춥고, 졸려 죽겠는데, 갈 곳은 없고…
간디IN의 짧은 소식	58	11월/12월
후기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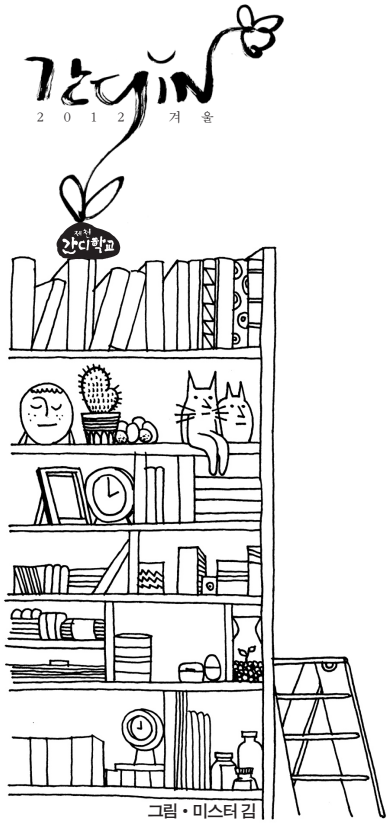


그림 • 미스터 김

우리 곁에 당연해진 것들

하한 편집장(5학년)

간디학교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20명 남짓 되는 손님들이 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여유로운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세척기도 겨우 넘길 만큼 작은 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었는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는 사진기를 꺼내 들며 '우리 아이가 설거지를 하다니!' 하고는 좋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인데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돌아보면 좀 더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간디학교 소식지《간디in》은 계간지입니다. 계절이 다가오면 기획 회의를 하고, 학기 중에 틈틈이 글을 쓰고, 많은 퇴고를 거쳐 소식지가 나옵니다. 일상다반사는 다른 모임이나 동아리보다 회의 시간도 길고, 횟수도 많습니다. 기획 회의나 퇴고를 해야 하는 날엔 2~3시간 가까이 회의를 합니다. 또 소식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방학해도 집에 가지 않고 4박 5일간 학교에 남아 글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소식지를 후원인 분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호도 기자들의 활동이 눈부셨습니다. 예년보다 급하게 찾아온 겨울 탓에 얼기 전에 무를 뽑아야 했는데, 사진 기자 사이에서 '보스'로 불리는 장우정 기자는 우박을 맞으면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간디인이 만난 사람' 꼭지를 맡은 손채은 기자는 글 마감 2일 전에 인터뷰를 해 놓고 마감을 지키는 노련함을 보여주었다가 USB를 잃어버리며 소심한 반항을 해 주었구요. 최햇님, 임소현 기자는 마지막으로 만드는 소식지에서 '졸업'을 주제로 한 특집 기사를 맡아 청탁, 인터뷰, 설문을 전부 사용하는 등 기자로서 모범을 보이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올해 가장 큰 행사였던 '김장'을 취재한 한 별 기자는 '모두 일하는데 놀러 다니는 거 아니냐.'는 야유에도 실실 웃으며 굴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간디IN》에서 가장 어려운 글로 손꼽히는 '사설'을 맡은 김예림 기자는 갈피를 못 잡아 힘들어 했지만, 뭐든 정석대로 잘해서 붙은 '정석림'이란 별명에 버금가는 '정석 사설'을 써 주었습니다. 사진 기자로 들어와 카메라를 잃어버리는 덕분에 '삽화 기자'로 승진한 이가원 기자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림으로《간디IN》에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온 신입 기자인 김민석, 김은수, 최형규, 안효원 기자는 겨울 호를 만들고 정식 기자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기자들의 게으름이었는지, 가을이 너무 일찍 가 버려 계절 감각을 잊은 건지 겨울 방학을 하고 난 뒤에야 가을 호가 나와 버린 탓에 겨울 호 편집도 늦어졌습니다. 방학을 해서도 글을 쓴 기자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새해인 2013년에는 1년간 영국과 미국으로 떠났었던 홍지인 기자와 권수정 기자가 돌아옵니다. 더 발전할 '2013《간디IN》'을 기대해 봅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준비할 새도 없이 2013년이 다가왔고, 벌써 봄이 오려고 합니다. 이 글의 시작이었던 '설거지'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12년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곁에 당연해진 것들'을 너무 가볍게 지나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새 찾아온 추운 겨울도, 매번하는 설거지에도 사소하지만 소중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디학교의 사소한 일상을 담아 내는《간디IN》이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겨울 호에는 2012년을 마무리하는 간디학교를 많이 담아 냈습니다. 추운 겨울 안방에 누워 호빵과 우유 한 잔 하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12년 겨울 호 시작합니다.

특집

기린반, 길이길이 기억되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난 6년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코찔찔이들이 멋진 신사숙녀로 자랐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알맞게 이어 보세요^^*

최햇님 · 임소현 기자(5학년)

2012년 12월, 6학년들은 왠지 모르게 분주하고 들떠 보입니다. 또다시 졸업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번 《간디IN》 겨울 호에서는 졸업을 맞이하는 간디인들과 6학년들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6학년들에 대한 재미있는 미니 꼭지들도 실어 보았습니다. 6년 동안 학교 생활하느라 수고했고, 졸업 축하합니다! 저희는 내년이네요… (또르르) 그럼, 함께 보실까요?

그림 · 노영빈(2학년)

졸업하기 전 알고 가자, 간디인 순위공작단!

간디인들과 6학년의 담임이신 희석 샘께 6학년들의 이미지에 대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재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일 예쁜 6학년

1위. 남다모(34표)
2위. 박다운(19표)
3위. 김경란(17표)
희석 샘 대답 안 하심.

2. 제일 잘생긴 6학년

1위. 이주호(33표)
2위. 김범수(16표)
3위. 윤두리한(9표)
희석 샘의 대답-김범수

3. 제일 몸매 좋은 6학년

1위. 김경란(56표)
2위. 윤두리한(10표)
3위. 이인지(7표)
희석 샘의 대답-김범수

4. 제일 밥 잘 사 줄 것 같은 6학년

1위. 이현무(21표)
2위. 윤두리한(18표)
3위. 김범수(13표)
희석 샘의 대답-이인지

5.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은 6학년

1위. 윤두리한(19표)
2위. 남다모(16표)
3위. 김범수(13표)
희석 샘의 대답-글쎄다…

6. 제일 술 잘 마실 것 같은 6학년

1위. 이현무(40표)
2위. 윤두리한(18표)
3위. 남궁청(13표)
희석 샘의 대답-이인지

7. 제일 술 못 마실 것 같은 6학년

1위. 이민수(36표)
2위. 남다모(12표)
3위. 박종화(10표)
희석 샘의 대답-박다운

8. 푸드파이터 해도 될 것 같은 6학년

1위. 남궁청(44표)
2위. 이현무(24표)
3위. 이주호(5표)
희석 샘의 대답-남궁청

9. 제일 공부 잘할 것 같은 6학년

1위. 이인지(25표)
2위. 박다운(17표)
3위. 이민수(16표)
희석 샘의 대답-허허, 참…

10. 내 후배였으면 좋을 것 같은 6학년

1위. 이현무(25표)
2위. 윤두리한(23표)
3위. 이인지, 남궁청(5표)
희석 샘의 대답-글쎄다…

11. 옷 제일 잘 입는 6학년

1위. 김경란(27표)
2위. 이현무(22표)
3위. 김범수(12표)
희석 샘의 대답-남다모

12. 제일 웃긴 6학년

1위. 윤두리한(20표)
2위. 이현무(19표)
3위. 김범수(12표)
희석 샘의 대답-김경란

13. 제일 만만한 6학년

1위. 윤두리한(21표)
2위. 이민수(14표)
3위. 이현무(8표)
희석 샘의 대답-김범수

14. 제일 잘 노는 6학년

1위. 이현무(20표)
2위. 김범수, 윤두리한(17표)
3위. 박종화(7표)
희석 샘의 대답-김범수

15. 제일 어려 보이는 6학년

1위. 이민수(51표)
2위. 남다모(14표)
3위. 남궁청, 이주호(4표)
희석 샘의 대답-이민수, 남다모

16. 제일 늙어 보이는 6학년

1위. 이현무(31표)
2위. 김범수(14표)
3위. 윤두리한(21표)
희석 샘의 대답-김경란

17. 제일 친해지고 싶은 6학년

1위. 이주호(18표)
2위. 김범수(13표)
3위. 윤두리한(8표)
희석 샘의 대답-그런 거 없음.

18. 제일 무서운 6학년

1위. 이현무(37표)
2위. 박다운(25표)
3위. 한은비(14표)
희석 샘의 대답-모두 만만함.

19. 제일 멋있는 6학년

1위. 김범수(20표)
2위. 이주호, 윤두리한(11표)
3위. 이인지(9표)
희석 샘의 대답-김범수

20. 6학년 중 한 명과 사귀어야 한다면 이 사람과 사귀고 싶다!!!

1위. 이주호, 김범수(12표)
2위. 윤두리한(9표)
3위. 남다모(4표)
희석 샘의 대답-솔로로 남을란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졸업식!

임소현 기자(5학년)

오늘도 6학년 언니 오빠들은 졸업식 기획 회의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는 콘셉트를 말하며 졸업식의 틀을 잡아 가는 모습을 보니, 언니 오빠들의 졸업이 조금은 실감이 납니다. 진부하고 따분한 건 딱 질색으로 여기는 간디인의 졸업식은 어떤 모습일지 사알짝 엿보러 가 볼까요? 6학년의 졸업식 기획단 대표인 이현무 학생을 만나 보았습니다.

Q. 졸업식은 어떤 콘셉트인가요?

A. 음…간디학교! 친환경 농산물(웃음). 이런 얘기 나오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학교의 겨울로 잡게 되었어요. 난로 위에 양은 주전자가 올려져 있고, 따뜻하고 소박한 시골의 겨울 느낌입니다.

Q. 지금까지 졸업식 준비는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A. 1부 2부로 나눠서 하는 건 다 얘기가 된 상태고, 우리 학년 남자애들이 공연 준비 중이에요. 이제는 개인별로 나와서 자신의 6년을 이야기하는 코너의 순서만 짜면 될 것 같아요.

Q. 살짝 스포일러해 주신다면~

A. 우리 학년 남자애들이 지난 6년 동안 앞에 나서서 공연한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파격적인 공연을 준비했지요. 한 마디로 친환경 유기농과 큐티가 섞인 시골 걸스의 느낌?(웃음) 정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도 좋아요.

Q.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런데 졸업식 때 학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솔직히 뭐 받고 싶어요?

A. 진짜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담아 주시는 건데, 뭐라도 다 고맙지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Q. 졸업식을 기획하면서 역대 졸업식들을 평가할 때 기획에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지난 졸업식들을 어떻게 봤어요?

그림 • 이가원(2학년)

A. 여태까지 졸업식들이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졸업식 시간을 좀 당기고 깔끔하게 졸업식을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도 기획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갖는 마지막 공식적인 시간이라, 보여주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있었던 건 함께하는 후배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덕분인데, 그분들 입장을 고려해 보니 시간을 좀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Q. 졸업식을 기획하니까 이제 졸업이 실감 나는 것 같아요?

A. 각자 다르겠지만, 혼란스럽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마음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졸업식이란 자리로 6년을 마무리해야 하니까.

Q.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 주세요!

A. 학교에 있는 시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 당시는 하기 싫고 귀찮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마음을 결정하는 건 자신이니까 본인이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웃음) 그리고 견뎌요!

개인적으로 당장 내년에 겪을 졸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더 와 닿았습니다. 이제 간디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멋진 꿈을 펼치길 바랍니다. 6학년 언니 오빠들도 잘 견뎌 주시길!

자, 이제 졸업을 앞둔 6학년들, 6학년 학부모님,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졸업하는 그들의 토킹 베이비~

임소현 기자(5학년)
그림 박다운 · 임현무(6학년)

이정표가 되어 줄 이곳

이인지(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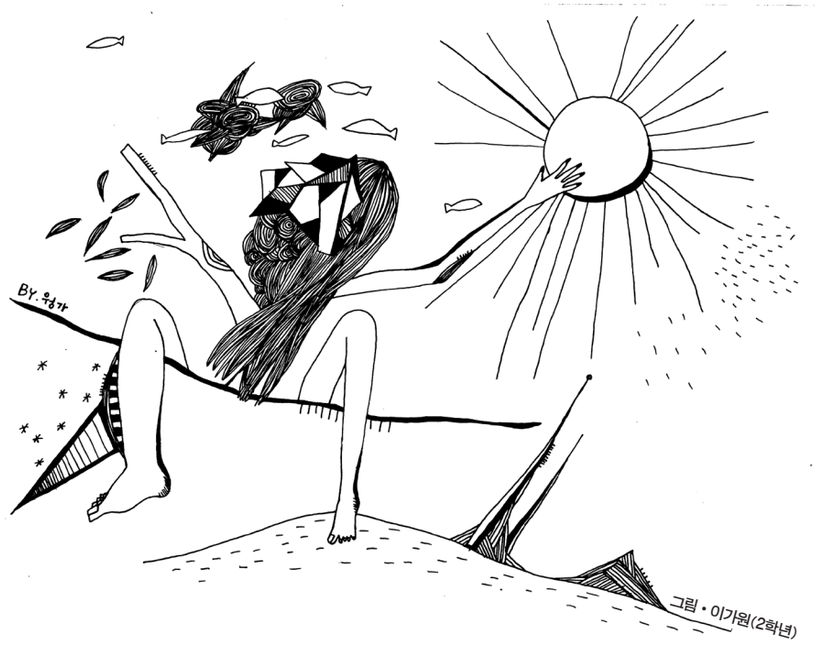


그림 • 이가원(2학년)

D-20

나에겐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졸업이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내가 졸업을 한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 졸업식 때 앞에 앉아 내 얘기를 할 때쯤? 아니면 졸업 여행을 끝내고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 가야 하는 곳이 더 이상 간디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쯤 졸업했다는 것이 실감 날 것 같다.

그동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간디에 입학을 했던 나는 학교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1학년 때 잠깐 학교가 아닌 집에 있었고 사람들이 그리워 학교로 돌아왔지만,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휴학을 했었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나는 늘 언제나 '학교 다니기 싫어. 학교 나갈 거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입학한 그 순간부터 인문학 캠프를 준비하면서까지… 때론 농담으로, 또 때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 또한 내가 간디를 6년 동안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려나?

6학년이 되고 더 이상 간디학교에서 지낼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 그제서야 학교에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 또한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고, 뒤늦게 깨달은 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간디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찾아 해야지.'라는 다짐도 했던 것 같다. 그 1년이 거의 지난 지금 별반 다르게 보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만큼 간디라는 그 울타리 자체가 나에게는 큰 힘이 되어 준 것 같고, 그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해 보고 싶었던 것 같다.

간디 6년.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배운 것이 참 많은 것 같다.

첫째,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였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 준 것 같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무빙이나 인턴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배웠고, 각자의 다른 모습과 성향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둘째, 고등부에 올라와서 학교의 철학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 철학에 맞게 개인 무빙과 인턴십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대안적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했던 만큼 무빙과 인턴십을 통해 그 해답을 얻은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배움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행복하기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 스스로 갖게 된 것이지 않을까 싶다.

처음 대안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했던 말이, '책으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놀면서 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 그때 했던 말처럼 간디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놀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누군가가 '간디 6년 다니면서 어땠어?'라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좋았어!'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나 스스로 알게 해 주고 내 삶의 길을 찾게 해 준 이정표 같은 곳이 바로 이곳. 간디학교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나의 간디 6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그동안 즐거웠고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두고

김만우(6학년 김경란 빠)

점심 식사 후 산책을 하고 왔는데, 부재 중 전화가 왔었나 보다. 간디학교 전화번호다. 경란인가?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들어 본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저는 '일상다반사' 임소현 기자인데요. 경란이 언니 아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디IN》 졸업 특집 호에 글을 써 달라는 청탁이다. 난생 처음 들어온 원고 청탁이다. 평소 매체에 글을 써 본 적이 없어서 내일 확답을 주겠노라 해 놓고서 위기를 모면했으나, 임소현 기자의 끈질긴 기자 정신에 굴복하여 이 글을 쓰고야 말았다.

07학번이 졸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잊고 있었다. 가슴 한 켠에는 간디학교에 졸업이 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벌써 7년 전인가? 어떤 인연이 닿았는지 그해 겨울 간디학교 캠프에 경란이를 데려다 주려고 남제천 IC를 빠져 나와 아름다운 청풍호수 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간디학교를 찾아갔었다. 지금도 겨울이 내려앉은 월악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간디학교에 입학하고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도 못했었다. 그런데, 아쉬움과 그리움에 사무칠 졸업이라니! 지난 시간, 간디학교와 함께했던 일들이 추억의 방에서 고개를 내민다. 입학식 때의 긴장과 설렘 그리고 새로움 만남들, 고향 같은 덕산의 산과 들, 장터의 모습, 제천 식당의 담백하면서도 맛깔스런 볶음밥과 칼칼한 맛이 일품인 짬뽕 국물, 가끔 생각날 것 같다. 덕산에 들어서서 구불구불 올라가다 보면 바람개비가 손을 흔들고, 운동장 양편에 늠름하게 서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와 고향의 향기를 코끝에 보내 주던 생태 화장실, 집에서 먹는 밥보다 더 맛있는 학교 식당의 음식(아이들은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하늘마루 올라가는 길은 다리를 건너면 누렁소가 보이고, '작은 거인' 양 샘 댁을 지나서 숨이 조금 찰 무렵 오래된 소나무가 반갑게 인사를 하면, '춤추는 대지'에 마치 잉카 제국의 숨겨진 공중 도시 '마추픽추' 같은 하늘마루가 자리 잡고 있다.

아이들은 지난 6년 동안 이곳에서 꿈과 희망을 그렸다가 지우기를 반복하였을 것이다. 그동안 그려 왔던 꿈과 희망을 노래할 때가 왔다. 그것이 간디인의 졸업이 아니겠는가? 이제 간디를 떠나서 산과 들에 피어난 들꽃처럼 작지만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때가 왔다. 헤어진다는 것은 가슴 짠하고 슬픈 일이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만남과 헤어짐의 아픔이 함께하는 우리네 삶, 그래서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나 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책임질 나이가 되어서 진정한 출발의 의미로 졸업을 받아들였으면 한다.

그림 • 이가원(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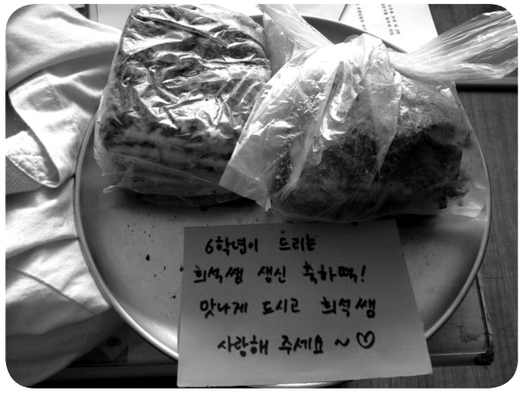
올해 프로 야구 선수 MVP로 넥센히어로즈의 박병호 선수가 선정되었는데, 그는 프로 선수 생활 8년차로 처음에 LG트윈스에 입단한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2군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야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가졌다고 한다. 그는 그럴 때마다 가족들 얼굴, 특히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서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졸업하고서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좌절이나 절망하지 말고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간디학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때, 몸에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던 웰빙이 유행했었다. 지금은 자연을 거닐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는 힐링이 대세인 시대가 왔다. 장 자크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인데,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고 했다. 우리 아이들이 햇볕 내음을 맡고, 새의 지저귐을 듣고, 바람의 손길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온 시간들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미래에 저당 잡히지 않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연습하던 시간이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또다시 시작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수많은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다. 간디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얻은 값진 경험이 우리 아이들 삶의 자양분이며 변화와 실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떠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야 할 것 같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곳이 간디학교다. 이제 간디학교를 떠나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들 모두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하나의 '간디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월악의 흰 눈이 녹고 청풍호의 물이 풀리면 봄의 새싹 같은 새내기들이 간디학교를 활기차게 하겠지. 새 봄이 기다려진다.

졸업

강희석(6학년 담임)



월급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 통장 잔고가 말라비틀어진 걸 보면 착잡합니다. 백 번을 넘게 받은 월급인데도 그 착잡함은 없어지지 않대요.

졸업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 보내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천에 와서 맞는 졸업은 더욱 착잡합니다. 이별의 아쉬움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졸업식 끝나자마자 다음날 07들 졸업여행에 운전 기사로 따라가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한두 해쯤 학교에 찾아와 귀찮게 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미안함이 커서도 아닙니다. 2년간 담임하면서 공정하게 대하려는 게 어려우면 한 발 빼서 공평하게만 대하려 했고, 나도 그 나이 때 다 했으면서 술 담배를 반복하는 아이들을 다독이기보다 윽박지르고, 그러다 보면 말 잘 듣는 놈 편애하듯 되고… 하지만 '그 정도가 불완전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였다'고 마구 합리화를 하며 그다지 미안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적어도 선생님들보다 6년을 함께한 친구들이 먼저 생각날 것이고, 교사가 가르쳐 준 것보다 스스로 성찰했던 게 더 많이 쌓였을 테니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미안함도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배움의 시간에서 항상 삶을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이야기하기보다 생명을 길러 잡아 먹어 보자고 했고, 생태주의를 논하기보다 생태 화장실을 퍼냈으며, 의식 있는 부자보다 책 읽는 노동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07들이 더 나이를 먹고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자기 삶으로 가져가려 찾아왔을 때, 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도 삶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배움의 과정으로만 얘기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착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고 진정으로 잘 살기를 바란다면 저부터 좀 잘 살아야겠습니다.

선생답게 선생질하려면 졸업생들이 찾아왔을 때 말로만 삶을 살고 있진 말아야겠어요.

길을 찾는 졸업생들에게 적어도 손이라도 내주려면 착실히 다져 가야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손을 내밀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졸업생들이 먼저 간디에 손을 내밀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간디의 역사에 한 켜 쌓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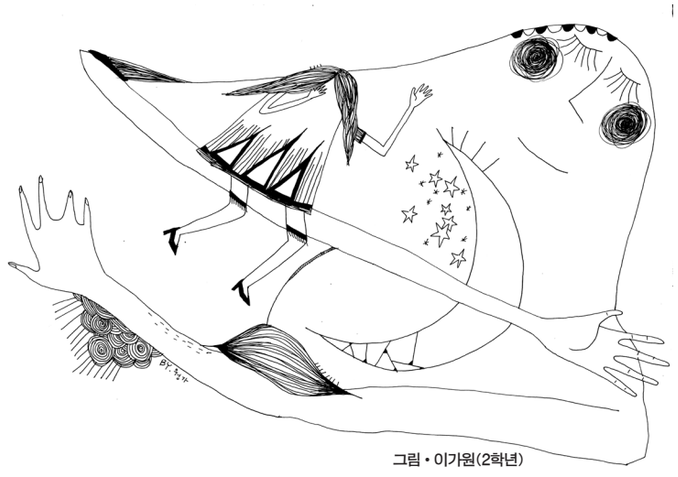


그림 • 이가원(2학년)

내가 잘 받아 주는 선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들면 다독이면서 천천히 가자고 하는 뭐 그런 아름다운 선생은 더욱 아니므로 힘 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07은 담임 생일이라고 학교에 떡까지 돌리는 희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애들 무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쉽고 미안합니다.

학교에서 만난 시간은 6년이지만, 앞으로 만날 시간은 더욱 많습니다.

간디의 미래와 그대들의 아름다운 꿈이 꼭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을 삶에서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디에서 둥지 틀기

정종명 샘(1학년 담임)

지금은 예비군 훈련을 막 마치고 돌아온 나른한 저녁이다. 생각보다 길이 많이 막혀서 오래 걸린 것 같다. 이전에 도시의 출 · 퇴근길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이젠 촌사람이 다 돼서 본능적으로 더 싫어하는 것 같다.

내 생애 처음으로 시골에서의 삶을 과감히 선택한 1년, 올해 초에 교사들이 다 함께 모여 한 해의 다짐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행복한 시골 남자가 되겠다고 한 것 같다. 유난히 시골 학교를 돌아다녔지만 도시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제법 시골에서 즐기려고 애쓴 것 같다. 학교에서 땅을 분양받아 농사라는 것을 처음해 보기도 하였다. 왠지 시골에서 어울릴 것 같아 풍물도 접해 보았다. 매실도 담가 보고 마늘 효소도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연탄 난로도 처음으로 설치해 보았다. 잠깐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익숙해져야 하고 편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올 겨울은 작년 겨울과 달리 창문에 방풍 비닐이라는 것을 처음 설치해 보았다. 옛날 집이다 보니 창문이 무려 8개나 돼서 고생을 조금 한 것 같다. 이것도 한 번 해 본 것이라고 동료 샘 관사에도 냉큼 설치해 주었다.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 하고 요란 떨던 때가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말이다. 한 해, 한 해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요령이 늘 것 같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시골이 재미있어지는 것 같다.

교사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이곳 덕산에서 부단히 이 말을 마음에 되새겼던 것 같다. 그렇다고 억지로 행복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법 재미있고 즐겁게 지낸 것 같다. 힘들었던 것은 처음 담임을 맡게 된 것에 대한 부담이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었다. 하지만 차라리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간디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담임이 같이 학교에 둥지를 틀어야 하는 일학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능수능란한 그런 샘이 아니라 같이 실수도 하고 어리버리하기도 하는 사람 냄새 나는 담임이 되고 싶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런

나를 잘 받아 준 우리 아이들이었다. 각기 모양과 색깔이 다른 보석과 같은 아이들이었다. 아직은 원석과 같이 고유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귀하게 변하고 바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 나도 바뀌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지만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입학식 하루 전에 터진 일학년 집합 사건, 이름만 들으면 대안학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집단 폭력 사건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으레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전에도 있어 왔던 것이 표면 위로 올라왔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라고 하는 역시 간디 문화의 힘이 있었다. 선배들은 이것을 계기로 돌아보기를 하고, 일학년들도 사회 생활의 쓴 물을 삼키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내년에도 쓴 물 맛을 잊지 않길 바란다.) 놀란 가슴을 달래기도 전에 집에 무척 가고 싶어하는 아이가 힘듦을 호소했다. 선배들이 힘들게 한 것도, 친구들이 힘들게 한 것도,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직 이곳에 없기 때문이었다. 천천히 한 발을 뗄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시간표대로 사는 아이가 되었다. 이제는 집에 가지 않고 애들을 데리고 시내에 나가서 놀 정도가 되었다. 이것 말고도 개개인적으로는 시기와 정도는 다를 테지만, 각자 수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각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성장 지점이었다는 것을 훗날에는 툭 터 놓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몇몇 다른 반 아이들과 샘들은 우리 반을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 무슨 부서가 이렇게 많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일을 꾸미든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아직은 실수도 많고 거칠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제풀에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일학년이기에 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눈치도 안 보고 실수도 하고. 이런 것에 비하면 난 정말 너무 조심스럽게 내 몸을 사리는 것 같다. 겁내지 않고 이것저것 던져 볼 때인데도 말이다.

아무튼 올해 일학년 애들을 만난 것은 나에게 정말 다행이고 축복이었던 것 같다. 얼마 전 애들이 아기 같은 손으로 자기네들 좋아하는 과자에다 브라우니(?)를 준비하고 칠판에다 마음에도 없는 잘생겼다는 말을 써 주던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우리 애들처럼 키가 자라고 발이 커지지는 않았지만, 올해 내가 유난히 성장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이 애들 덕분에…

사랑하는 콩자반 애들아, 우리 앞으로 좀 더 크자!

간디학교 1년을 보내며…

송민혜 샘(1학년 부담임)

사람에게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2012년 간디학교에 부임한 나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음 2학년 교실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내가 놀람을 금치 못한 것은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기 때문이다. 나를 보는 초롱초롱한 눈들… 이 아이들이 무슨 문제나 일으킬 수 있을까? 말도 안 됐다. 그러나 그러한 착각은 정말 잠시였던 것 같다…

그런 아이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고 보니 그렇게 초롱초롱하거나 귀엽지도 않더라…

먼저 나는 나의 생각부터 바로 고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아이들을(한낱 어린 중 2의 아이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이다. 그러한 기대가 실망을 가져왔다는 생각을 이번 글을 쓰면서 해 본다.

우선 나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하여 여자아이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 치킨을 시켜 먹기로 하였다. 그건 부임하고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가는 무렵인 4월 말이었던 것 같다. 일단 아이들이 그 제안을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하였다. 안심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탓에 뭐라도 했어야 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감사히 먹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해 왔다.

몇 마리를 시킬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글쎄, 내가 그걸 잘 모르니… 대답을 잘 못하자, 아이들은 2인당 1마리 총 5마리를 시키고 닭똥집 튀김을 2개 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흠…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당한 것은 정말 좋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전혀 나의 주머니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섭섭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과 친해져야 하기에 일단은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시험에 나는 당당히 통과하여 아이들이 나중에 치킨 이야기를 하며 나를 좋은 샘이라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아이들이 나를 시험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항상 헷갈렸다.

2학년 아이들은 먹을 것을 사 주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다. 먹는 것을 사 주면 그때 조르르 와서는 와구와구 먹고 슝 가 버리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았다. '그 나이 때는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나도 편했다.

아이들과 먹는 것으로 많이 친해지고 무빙 기간이 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이들이 먹는 것에 환장하고 말 잘 듣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무빙이 시작되고 학교를 벗어나고부터 악몽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너도나도 본성을 하나둘씩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학년 때 말로만 듣고 실천하지 못했던, 2학년이 되면 기필코 해 봐야지 했던, 학교를 벗어나는 무빙이어야만 했던, 이 3박자가 충분히 갖춰졌던 그때가 아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기 시작한 시점인 것이다.

아아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

너희들이 해 봤자… 했던 것도 많이 빗나갔던 것 같다. 일단 아이들은 샘들이 무슨 제안만 하면 그냥 다 싫다고 했다. 이유는 갖가지였다. 이걸 못하게 하고, 저걸 못하게 하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못하게 한 것도 없는데, 많은 이유를 붙인다. 그냥 반항하고 싶어서겠지? 그냥 자기들은 냅두란다. 우리가 짰던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안 한단다. 그냥 쉬겠단다.

흠… 선생으로서 용납은 안 되지만, 일단 샘들은 두고 보기로 했고 놔둘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아이들은 참 장사를 못한다. 우리가 하나를 양보하면 아이들도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또 싫은가 보다. 밤에 소주와 맥주를 사와서 마신 것이다. 그것도 꼴랑 21명 있는 반에서 누구는 끼고 누구는 빠진 채로 패가 나뉘어서는…

괘씸하다. 많이 믿었는데. 황당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았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어떠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아이들과는 술을 마신 것 같았다. 물론 샘들이 볼 때는 웃기다.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 누가 누굴 평가한다고… 으흐흐흐.

아이들은 너무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다음날까지 인사불성에 속이 안 풀려 난리였고, 우리는 그렇게 술 사건이 마술학교 입교로 마무리 내지는 일단락될 줄 알았는데… 휴…! 아이들은 그 술이 성에 안 찼는지 남자아이들끼리 2차 음주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3차 음주를 하였다. 정말이지, 이건 술의 무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스케일도 크다. 마셨다 하면 각 1병이다. 여자든 남자든 없다. 이래서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이 맞는구나 생각해 봤다.

처음에 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단히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나? 아이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술 사건을 자주 일으켰고, 또 우리 아이들의 주특기인 일은 벌여 놓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좋다. 사실 1:1로 대화를 해 보면 정말 다들 귀엽고 착하다. 그런데 우리 학년 아이들의 취약점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일을 벌여 놓고 뒷수습 안 하기, 못하기, 싫어하기, 무섭기 등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뒤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 물론 그러한 사건들은 2학년 아이들이 다 함께 저지른 일은 아니다. 몇몇 호기심 덩어리인 아이들이 사건을 많이 일으키는데, 나는 사실 그러한 현상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 나이 때에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이 때에 하기에는 아이들이 골고루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아이들에 국한되어 있어 그 부분은 좀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사람의 성향이 그러한데 그 나이에 걸린 것이겠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2012년은 앞으로 찍어야 할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고작 하나일 것이다. 나중에 철이 들면 2012년에 한 일이 창피해지는 날들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이 삶은 가치가 없을 것이고, 또 사춘기는 사춘기답게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는 아이들의 사춘기 2012년을 함께 보낸 증인으로 남겠지?

요즘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을 보면서 1992년의 나로 돌아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책임감 없고 말 안 듣던 안산 중앙중학교 2학년 시절의 나를 회상하고는 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내년에 3학년 담임은 정말 힘들겠다.' 하고…

논문이 끝나서 아쉽다

변소영 샘(3학년 부담임)

햇반과의 인연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개월째다. 1학기엔 제주도 무빙과 2학기엔 크나큰 논문이 있었으니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하는 올 1년은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행복했다. 이런 나와는 달리 아이들은 논문에 대한 부담감과 피곤함으로 지쳐 있기도 했겠지만, 나는 아이들과 더 가깝게 부대끼며 지냈던 이 시간들을 그리워할 것 같다.

재미있을 것 같은 논문에 대한 압박은 학기 초부터 시작됐다. '논문 계획 발표(5/8)-중간 발표(9/4)-최종 발표(10/16~17)'에 오기까지의 긴 시간들을 잘 보내 준 밥풀들이 예쁘고 기특하다. 결과가 어찌 됐든 말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2차 발표 3일 전이지만, 최종 발표 일 주일 전과 최종 발표 전날까지 계속 상현 샘과 나와 밥풀들은 거의 매일 밤샘을 하면서 아이들의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 목차의 내용들을 잡아 주고, 본문의 흐름을 바로잡으며 결론에 담을 내용들을 의논하고 하는 등의 과정을 쭈욱 함께했다. 논문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루 24시간은 잠자는 시간을 빼 놓고는 꼬박 논문을 쓰는 데 할애했을 것인데, 그런 아이들이 못내 안쓰럽고 가엾기까지 했다. 논문을 쓰기 위해 무빙을 다녀와서부터 또는 여름 방학 때부터 혹은 2학기부터 또는 중간 발표 이후부터 계획을 짜고 준비했을 우리 반 아이들이다. 논문을 쓰면서 고단함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 가며 그 긴 시간 동안 논문을 진행하고 완성했을 것이다.

아이들과 밤샘하는 동안 나도 조금 피곤했지만, 상현 샘과 함께 '어떤 간식을 챙겨 주면 좋을까?' 하며 아이들 모르게 행복한 고민도 하면서 보냈다. 그렇지만 나만큼이나 개코인 우리 밥풀들이 미리 알아차려 깜짝 파티는 없었지만, 그 늦은 시간에

함께 나눠 먹으며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논문 발표날은 더욱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학교 행사 때마다 늘 자신 있게 자신의 끼를 보여주던 우리 멋진 아이들이 그날은 정말 많이도 긴장했다. 발표하는 아이들만큼이나 나 또한 그 간의 준비 과정들을 어떻게 잘 얘기해 줄 수 있을지 설레고 조마조마 긴장이 됐다. 음악을 좋아해 자신의 이야기들을 담아 곡을 만들고 노래하는 아이들, 단지 축구가 좋아 시작한 논문, '밀가루는 나빠'라는 생각에서 시작해, 그래서 '밀가루는 나쁘다'로 확언을 준 아이, 커피 내리기를 좋아하여 곡물을 이용하며 수많은 실험을 통해 스스로 많은 공부를 했을 아이, 학교 곳곳에 아름다움을 전해 준 아이들, 즐거웠고 또는 가끔은 외로웠을 3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준 아이, '소설로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에 관한 글을 소설화하여 마음을 보여준 아이, 온라인을 통한 즐거운 소통을 하고 싶은 아이, 베이스를 멋지게 연주하고 좋아하면서 대학 공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아이, 지구를 지키고자 채식 빵을 또는 천연 발효 빵을 나누고 싶은 아이들, 자신이 만든 레시피로 간디인 기호에 맞춘 케이크를 만들어 준 아이, 아이를 좋아해 좋아하는 일들을 직접 경험해 보며 자신의 꿈을 키우는 아이, 좋은 것 혹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리고 스스로에게 부딪쳐 온 세상에 멋지게 응답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풀어 낸 이야기들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상현 샘과 나와 아이들은 확실히 안다. 논문이 보여준 아이들의 이야기, 논문을 위한 밥풀들 스스로가 쓰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 기나긴 과정 동안 고생하고, 즐거워하고, 힘들어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됐을 아이들이 정말, 정말, 정말 예쁘다.

이토록 아이들을 힘들게도 하고,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까지도 커 버리게 만든 이 지난한 활동은 '몸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었을까 한다.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도 너무나 편협하고 독선적인 이들을 만날 때면, 나 또한 공부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 학교에서의 3학년 논문은 아이들에게 어떤 과정이었을까?

단순히 중등 3년을 끝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사회'에 대해서 깊이 따져 봄으로써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나,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시작 단계일 수도 있다. 논문을 쓰면서 안 읽던 책을 읽게 됐고, 글쓰기의 경험도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 것인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신이 던진 물음과 '온몸으로' 마주하는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됐고, 자기만의 언어로 논문을 쓰는 것은 누가 일일이 가르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자기가 생각한 가치들이 논문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 자기 입장을 스스로 세우는 성숙의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었다.

매뉴얼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간 순간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고, 일상에서 충분히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 입장을 세워 가는 상황을 많이 경험해야 했을 것이다. 담임 샘이나 지도교사와 나 사이에서 서로 배타적인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처신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논문을 써 내며 즐거워하고 혹은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한 상황에서 적절히 행동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성숙의 의미이다."라는 우치다 타쓰루의 말이 생각난다. 그런 아이의 내면에서 담임 샘이나 지도교사와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치는 가운데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면서 조금씩 성숙해 간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잘해 온 우리 밥풀들을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 논문이 끝나고 나면 3학년의 큰 행사는 다 치른 셈이 되었다. 그래서 난 논문이 끝나 가는 게 정말 아쉽다. 밥풀들과 함께 보낸 1년은 나에게 큰 선물이었다. 즐겁고 행복했던 제주도 무빙과 논문이 아이들에게도, 또 나에게도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그간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손편지로 내 마음을 전한다. (위의 사진 순서대로) 지훈, 소윤, 하한, 소아, 나린, 건산, 별, 영서, 도운, 형근, 채현, 푸하, 준상, 한새, 성민, 혜린, 고운, 현선, 산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있는 진이, 학교엔 없지만 학교 밖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을 세영이까지, 모두들 고맙고 사랑해 ! 🐰

일상

황정인 샘(고등 멘토)

요즘 나는 '일상'이란 단어에 꽂혀 지내는 중.
간디에서 나는 일상을 연습 중이다.
내 자신에게 요즘 내가 던지는 질문은 '나는 일상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나의 일상을 꾸리는 이들은 누구이고, 나는 반복되는 일상을 어떻게 이어 나가나?' 하는 것이다.
삶의 뚜렷한 목표가 없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 내가 찾는 것은 삶의 목표보다는 일상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이들로부터 일상이 결코 무미건조하지 않다는 것을 배워 간다. 간디에 오기 전 나에게 일상이란 무언가를 '반복하며'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로부터 '안정감'을 느끼는 생활 패턴 정도.

지금 나에게 일상이란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 실수에 실수를 거듭해 보는 성장의 과정이다.
이번 학기 두 달간 다녀온 필리핀 여행은 비록 4학년 교과 과정의 일부로 진행되긴 했지만, 스물 한 명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지내다 보니 일상의 연장선이기도 했다. 여행이 끝나고 보니, 나는 새삼 아이들의 모습으로부터 또 내가 그 일부가 되어 보면서 일상이라는 것을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아이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서로와 24시간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58일을 함께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것이 있다면 수다 떨기. 때로는 긴밀하게, 때로는 가볍게 아이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내면을 여는 방법을 연습하고 그 안에서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생각과 느낌은 이야깃거리가 되기 마련이고 그 이야기는 그들만의 작은 역사가 된다. 여행이라는 상황이 일상을 벗어난 상태이긴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면 그것조차도 일상의 일부가 된다고 믿는다.

필리핀에서 내가 엿본 4학년 아이들의 일상은 참 둥글다는 느낌. 완벽한 원이라기보단 뭉뚱그려진 스케치에 더 가깝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며 여행을 특별한 일상으로 채워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형형색색의 모자이크 직물 같기도 했다.

아이들로부터 나는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음을 나누려는 용기라는 조건이 따른다.

여행 중 만난 딸란딕 사람들로부터도 느꼈다. 그들 안에 녹아 있는 특유의 재치와 즉흥성은 나에게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을 어떠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푸르른 하늘의 강렬하게 쬐는 태양 아래 즉석에서 딴 코코넛의 달짝지근함을 맛보는 그 재미도 나눔이 없었다면 기억에 그다지 남을 것 같지 않다.

내가 간디에 온 건 일상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닐까?

어느 주말 풀무학교에 연수를 갔을 때, 어떤 분이 학교는 '일상을 견뎌 내는 힘을 길러 주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일상을 견뎌 내는 힘'이 무엇일까?
언젠가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때 즈음이면 나는 나의 일상에서 그 해답을 찾았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며 이것저것 얼기설기 엮어 놓은 듯한 나의 어설픈 글을 마친다.

반가워요 후원인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대들

손채은 기자(2학년)

우리 맞은편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 북한. 저번 가정 학습 하기 전에 김은정 양과 박성남 군이 다녀갔었는데, 은정 양과 성남 군은 흔히 새터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은정 양과 성남 군의 아버지와도 같은 분인 후원인 마석훈 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 드려요.
A. 저는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 공동체를 이뤄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온 아이들 중에 고아인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과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죠.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12년 정도 다 되어 가네요.

Q. 그 생활 공동체를 '우리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A. 일단은 그룹 홈이라는 명칭이에요. 쉽게 말하면 작은 고아원이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는 전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남한에서 저하고 같이 '우리 집'에서 사는 거죠.

Q. 검색 창에 '우리 집 공동체'를 쳐 보니 '꽃제비 아이들'이라는 게 나왔는데 '꽃제비 아이들'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A. 부모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시장 같은 곳을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걸 꽃제비라고 칭합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1990년대에 심했어요. 그때 몇백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는 양희창 샘과 제가 그 일을 돕고 싶어, 중국에서 꽃제비 아이들이 떠도는 걸 도와주다가 그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Q. 어떻게 그 일에 도움을 주게 되었나요?
A.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웃음) 그때는 그 일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 벌써 10여 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원래 제 꿈은 간디학교 교사였어요. 양 샘과 대학교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간디 샘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양 샘이 저를 탈북 아이들을 돕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 샘한테 쫓겨났어요. (웃음)

Q.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대학교 때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었어요. 제가 그때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이 양 샘이에요.(웃음) 우리 동아리 예배를 인도하러 오셨죠. 키도 작은 이상한 사람이 하는 그 얘기를 대학교 6~7년 내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양 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4~5년간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디학교가 생겼고, 저는 간디학교에 와서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양 샘한테 쫓겨난 뒤 간 곳이 통일부의 탈북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학교를 만들고 탈북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살고.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했을까? 돈 벌고, 남들처럼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난 왜 그렇게 안 살고 이 일을 했느냐 물으면 나도 잘 몰라요. 옳다고 생각하고 자꾸자꾸 하다 보니 계속 빠져들어요. 점점 더 일에 빠져들어, 이제는 이게 나의 본질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한꺼번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야금야금 물들었어요. (웃음)

Q.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A. 전 애들하고 실랑이하고, 남자애들이랑 레슬링하고 싸우며 놀아요. 애들하고 노는 게 제 일이죠. (웃음)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사실 이런 일은 법도 없고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고,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통일교육도 시키는 게 제 일입니다.

Q. 그렇다면 그 '우리 집'에서의 학생들의 생활은?
A. 우리 애들은 일반 학교를 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학원에도 가고 놀면서 저녁엔 같이 밥을 먹어요. 방학 때는 다 같이 캠프도 가면서 지내고 있어요.

Q. 학생들이 '우리 집'에 오기까지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A.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지금 우리 간디 친구들보다 더 어린 친구도 있지요. 초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 한 번 그 친구를 생각해 봐요. 너무너무 굶었어요. 엄마 아빠는 굶어서 돌아가시고 자기만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동냥도 하고 얻어먹고 겨우 겨우 살다가 흘러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그 오랜 기간들 동안 많은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보다 더 어린 나이에 겪었던 고생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걸 겪은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서 애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이 일이 되어 버린 거예요.

Q. '우리 집'에서의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음… 북한 애들이다 보니 남한 애들과는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 재밌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처음에 딱 남한에 오면 초코파이를 처음 보잖아요. 애들이 초코파이를 먹으려고 할 때, 제가 '야, 씻어 먹어야지!' 하면 애들이 수돗가에서 씻어 먹어요. 그럼, 막 놀리고. (웃음) 그러니 뭘 하나도 모르는 애들 놀리는 재미가 쏠쏠해요. 애들이랑 놀러 가면 간판에 '원조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애들이 어떻게 할머니의 뼈다귀로 감자탕을 해 먹을 수 있냐고 물어요. 그럼, 제가 '어~ 미안해. 오늘은 할아버지 뼈다귀로 감자탕 만들 거야.'라고 하면서 놀리고.(웃음) 애들 놀려 먹는 게 정말 재밌어요. 에피소드란 게 거의 애들이랑 노는 거밖엔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애들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혼내는 일도 있고. 저번에 성남이 봤죠? 성남이가 나한테 제일 많이 혼났어요.(웃음) 애가 야동 같은 걸 좋아해서.

Q. 이번에 김은정 양과 박성남 군이 왔었는데, 어떤 의미로 보내셨나요?

A. 일단은 성남이랑 은정이랑은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제가 키워 왔어요. 벌써 7~8년 이렇게 됐는데, 애들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성남이는 공고에 갔고, 은정이도 약간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깐 학교에 가면 잠만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학교 생활의 의미가 없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깐 너무 안타까웠어요. 결국 양 샘이랑 여러 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우리 애들한테도 간디라는 걸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보내게 되었어요. 성남이랑 은정이가, 간디를 통해 공부든 일이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보낸 거예요. 이번에 성남이랑 은정이랑 다녀왔을 때, 어땠냐고 물으니까 애들이 '참 신기했어요. 애들이 하루 종일 놀아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공부는 안 하던?' 하니까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놀아요.' 그래서 '너는 노니까 안 좋던?' '저야 노니깐 좋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뭐가 제일 좋았니?' '애들이 놀든 무얼 하든 다 자기 알아서 스스로 해요.'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애들을 그곳에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놀든 공부하든 자기 삶을 스스로 하는 게 성남이랑 은정이한테는 아주 큰 충격이었나 봐요. 은정이는 처음으로 학교를 보내 달라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내년부터 다시 학교를 다니기로 했고, 성남이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지금은 복싱하고 있어요.

Q. 간디학교를 알게 되신 계기와 후원을 하기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A. 알게 된 건 15년도 더 됐어요. 산청 간디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제천 간디 오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죠. 제가 제천 간디 와서 페인트도 칠했고 식당의 황토도 칠했고, 입구의 그림도 제가 그린 거예요!! (웃음) 저쪽 강당에 있는 나무도 제가 심고. 그래서 간디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양 샘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양 샘 보러 자주 놀러 오고 돕고. 왜 돕고 있냐면 나도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여기 간디학교가 힘들었어요. 아직도 힘들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후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여러 곳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웃음)

Q. 마석훈 님이 보시는 간디학교 이미지는?

A. 너무 너무 좋고 예쁜 거 같아요. 내 자식이 있으면 꼭 여기로 보내고 싶은 학교예요.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성남이랑 은정이를 여기로 보내 봤고요. 왜냐하면 간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간디 같은 곳의 아이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고. 제가 한 번 손님을 많이 모시고 왔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왜 이곳으로 모셔 왔냐면 간디 같은 학교를 더 많이 세상에 알리고 퍼뜨리고 싶어서예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런 학교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아주 대단할 일이에요. 그 자체가 저항이고 혁명이에요.

Q. 마지막으로 간디에 하고 싶은 말씀은?

A. 간디에 가끔씩 놀러오면 지금 애들이 옛날 아이들에 비해 착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엔 착한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칠고 성깔 있고.(웃음) 난 그게 더 좋아요. 난 안 착했으면 좋겠어요. 또래 애들의 청소년기에는 남들 말 고분고분 듣고 하라는 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말고. 저항하고 떼쓰고 사고 치고. 그게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아이가 청소년인데, 자꾸 그걸 안 하고 모험을 안 하려는 모습, 착해지려는 모습이 얼핏 간디 친구들한테도 요즘엔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사고 치고 이 자유를 지겹도록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내내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 마석훈 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학교 자주 놀러 오시고 새로운 터전의 그들을 위해 밝은 미소 보여주세요!

우리는 새터민~!!

최형규 기자(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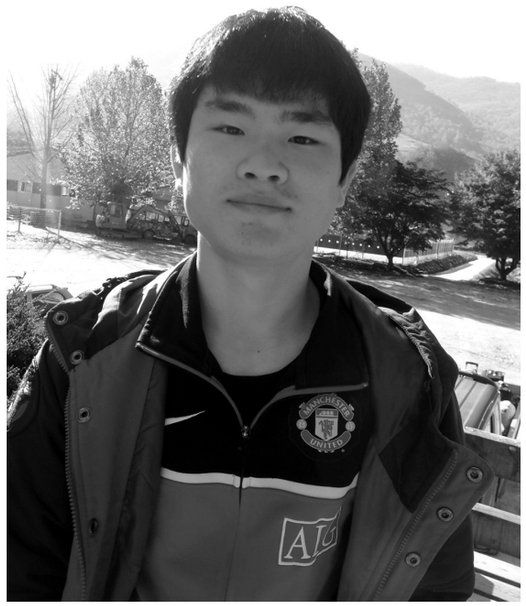
지난 9월. 두 명의 학생이 제천간디학교에 체험을 하러 왔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후원인이신 마석훈 님께서 운영하는 새터민 청소년 생활공동체에서 온 학생들로서, 바로 박성남 군과 김은정 양입니다. 9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많은 일들을 겪으며 저희와 함께 지냈답니다. 함께했던 기간이 짧아 너무나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만나러 가 보실까요??

Q. 성남이 형하고 은정 누나는 간디학교에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A. (성남) 처음 왔을 때 매우 시끄럽고 복잡한 학교, 자유로운 학교인 것 같았고 시험을 안 본다는 점이 매우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디학교가 내게 주는 첫인상은 매우 활발한 학교였어요.
(은정) 처음 간디학교에 왔을 때는 '완전 자유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간디학교 학생들이 너무 정색을 잘해서 못 친해질 줄 알았어요.

Q. 혹시 간디학교 생활하면서 인상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점이 있어요?
A. (성남)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고, 4학년이 되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은정) 회의를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Q. 형하고 누나가 생각하는 간디학교의 장 · 단점은 무엇인가요?
A. (성남) 장점은 일반 학교에서 받는 시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인 것 같아요.
(은정) 장점은 애들이랑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 단점은 너무 시골이고,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같아요.

Q. 간디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A. (성남) 딱히 없었어요.
(은정) 간디학교 학생들은 각자 다 할 일이 있는데, 처음 학교에 온 나는 할 일이 없었어요. 또 말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어요.



Q. 새터민 공동체 생활과 간디학교 생활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성남) 일단 공동체라는 것이 비슷하고, 같이 놀고, 밥 먹고, 생활하는 점이 새터민 공동체 생활과 간디학교 생활과 매우 비슷해요. 하지만 새터민 공동체 생활에서는 어디든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는데, 간디학교 생활에서는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은정) 음… 우선 비슷한 점은 구역과 방을 청소한다는 것, 다른 점은 새터민 공동체는 간디학교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용돈 기입장을 써야 용돈을 준다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Q. 저도 새터민 공동체에서 생활해 보고 싶네요.(웃음) 형하고 누나는 어떤 계기로 탈북을 하게 됐어요?
A. (성남) 내가 살던 고아원의 어떤 아줌마가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게 탈북이었어요.
(은정) 처음엔 엄마가 동생을 먼저 탈북을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냥 탈북을 했어요.

Q. 북한에서는 주로 어떻게 생활했어요?
A. (성남) 난 고아원 출신이라 잘사는 것도 못사는 것도 아니었지만, 배고픈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은정) 엄마와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가 계셨고, 늙은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Q. 탈북하고 나서 남한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A. (성남) 일단 사람들이 음식을 남기는 것이 신기했고, 사람들이 심하게 싸우지 않아서 신기했어요.

(은정) 탈북하고 나서는 바로 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잤지요. 자고 일어나서 본 남한의 첫인상은 매우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았어요.

Q. 이제 내일이면 간디학교를 떠나는데, 떠나면서 아쉬운 점은?

A. (성남) 딱히 없지만, 아이들이 내가 사는 곳으로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은정) 애들이랑 많이 친해지지 못해서 아쉬워요, 훨씬 더 친해졌어야 했는데… 많이 아쉬워요.

Q. 성남이 형과 은정 누나의 꿈이나 목표는?

A. (성남) 나는 손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죽지 않을 만큼만 벌고, 아이들에게 나의 손기술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은정) 다시 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에요.

저의 실수 때문에 두 번이나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로 응해 준 성남이 형과 은정 누나. 정말 고맙고, 각자의 꿈 꼭 이루길 바랄게요~^^ ✌

새터민 청소년 생활 공동체 '우리 집'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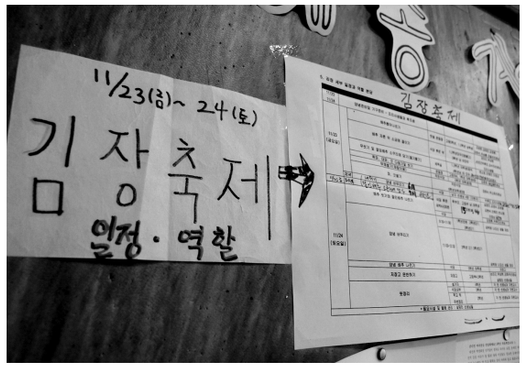
1998년, 중국을 떠돌던 북한 아이들의 처참한 현실이 공중파 방송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외국인 노동자 단체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던 청년 몇 명이 이 보도를 접하고, 상황의 급박함을 인식하여 작은 단체를 결성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을 떠도는 북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이 필요한 아이들에겐 영양 보충을 해 주고 수술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북한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극단적인 활동가와 언론에 의해 기획 망명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내에서 조용히 생명을 유지해 가던 대다수의 탈북 주민들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중 일부는 행방불명되거나 의문사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중국 정부의 단속과 북한 특무의 활동으로 더 이상의 직접적인 활동이 어려워지자, 북한 아이들을 조용히 한국으로 입국시켜 경기도 안산에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집'입니다.

김장 축제, 그 맛있는 현장 속으로

한 별 기자(3학년)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학교가 제천으로 이전한 2002년 이후 김장도 이어져 왔지요. 제천간디학교의 김장은 집에서 하던 김장과는 다르게 꼬박 이틀 동안 전교생이 힘을 모아 만들기에 양도, 맛도, 재미도 배가 되지요. 김치를 먹는 간디인이 많은 만큼 올해 김장도 1,000포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흥겨운 김장 축제 속으로 가 볼까요?



이틀에 걸쳐 이뤄지는 간디학교의 김장은, 매년 농부들이 추수를 끝내고, 학생들은 기말 막바지에 이르러 한해를 마무리할 즈음 치러집니다. 첫날 밭에서 배추를 뽑아 나르고, 배추를 잘라서 절이고, 쪽파 다듬기와 무 채썰기 등의 준비가 끝나면, 주방에서는 준비된 재료들로 미리 양념을 해 놓지요. 둘째 날은 이른 새벽부터 고등부를 중심으로 절여 둔 배추를 씻어 건지는 일을 합니다. 정해 주지 않아도 늘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자원해서 새벽일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오전 시간 동안 배추 버무리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버무리기까지 다 끝내면, 점심으로 오전에 버무린 김치와 함께 수육, 시루떡을 먹으면서 그해 김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보통 한 가정에서(4인 기준) 20~30 포기의 배추를 담그는데, 간디학교에서는 올해뿐 아니라 매년 1,000포기 정도를 해 왔습니다. 주재료인 배추도 매년 80%를 농사 샘을 주축으로 농사 기초, 농사 작업장 학생들이 기른 학교 배추를 썼지만, 올해는 배추 작황이 좋지 못해서 그 비율이 50%라고 합니다. 올해같이 날씨가 도와주지 않을 때엔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작년에 절임배추 400포기를 후원해 주셨던 괴산 어르신 가정에서 500포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올해 김장은 11월 23일(금), 24일(토)로 아직 몇 주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학교는 김장 준비로 부산합니다.

김장 준비

11월 1일, 중등부 학생들이 전부 식당에 모여 고추를 닦고 마늘을 깝니다. 마늘의 매운 성질 때문에 눈물이 나고, 고추에서 날리는 매운 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는데도 간간히 들리는 웃음소리와 도란도란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며 꿋꿋이 해내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11월 11일, 원래는 중등 놀작시간이었던 4시에 밭에서 무를 함께 뽑아 줄 학생들을 구한다는 방송이 울렸습니다. 마침 그날은 비바람과 함께 우박까지 내렸던 날이었는데, 매서운 날씨에도 몇몇 학생들은 끝까지 남아 무를 뽑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올해 김장 준비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장 첫째 날

드디어 김장 첫날인 11월 23일, 아침부터 분주한 식당 샘들과 김장을 위해 추리닝과 몸빼를 입고 내려온 학생들의 모습으로 오늘이 김장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은 기초 작업을 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일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쪽파 등의 재료 다듬기를 하고, 밖에서는 배추 절이기, 무 씻기 등의 작업을 합니다. 먼저 남학생들이 배추밭의 배추를 뽑아 나르기 시작하자, 배추를 김장하기 알맞게 자르기와 자른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절이기 팀도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쌀쌀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열심히 배추를 자르고, 소금물에 절이는 간디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취재를 이유로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기자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면서 툴툴대는 간디인. 역시 간디인의 장난기는 김장 날에도 죽지 않았더군요!

-올해 김장 어떠세요?

미리강-김장을 맞이하는 건 언제나 즐겁죠. 그런데 올해는 배추 농사가 작년에 비해 잘 되나 싶었는데, 배추 속이 안 차서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른 배추가 이렇게 자라서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니 기쁘죠. 김장은 축제예요 축제!

혜진 샘-집에서 한 번도 김장을 해 본 적이 없었어요.(웃음) 그래서 학교 김장이 새롭고요. 김장을 맞이하는 마음이 좋네요. 배추가 많아서 좋아요.

양지훈(3학년)-김장할 때마다 매번 새롭고 재밌어요. 성실하게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듯한 포즈를 잡아 주어서 주위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후조 샘-김장을 하니까 행복합니다. 아주 좋아요.

손 샘-김장 좋아요. 김장을 하고 그 김치로 1년을 먹는 거잖아요. 늘 할 때마다 우리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게 마음을 푸근하게 해요. 추운 겨울날, 연탄을 쟁여 두어 든든한 마음이랄까요?

새로 오신 식당 샘-이제까지 해 왔던 김장과 다르게 여럿이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추운데 일도 잘하고요.(웃음)

남학생들은 쉬지 않고 수레에 배추를 한 가득 담아 실어 오네요. 기자가 배추밭에 갔을 땐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배추를 뽑은 나머지 거의 다 끝나 있었는데, 역시 힘쓰는 일이라 그런지 남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평소 '독거노인'이라는 별명이 있는 교사 대표 필 샘, 오늘은 지팡이까지 들고 계셔서 한층 더 그래 보였습니다. 저 몸으로 배추를 뽑으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배추 뽑기 어떠셨어요????
필 샘-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이번에 1학년들이 아주 열심히 해줬어요.

안상윤(1학년)-무 뽑기 힘들었어요. 무거웠어요. 김치 맛있을 것 같아요.

농사 샘-즐겁고, 축제 같네요. 올해 배추가 속은 안 찼어도 달고 고소해서 김치가 맛있을 것 같아요.

배추 절이기 팀 뒤편에는 무 씻기 팀이 고무대야 앞에 둘러앉아, 무를 씻고 있네요. 식당 조리실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6학년 오빠들이었습니다. 가장 좁은 공간에서 가장 큰 오빠들이 무를 씻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웃기네요.

-마지막 김장인데, 어떠세요?
윤두리한(6학년)-마지막인데 김장이라 짜증 나요.(웃음)
김범수(6학년)-마지막이면 쉬게 해 주지.(웃음) 아, 근데 이거 소식지에 실리는 거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잘' 써 줘.(웃음)

장난기 가득한 인터뷰를 끝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는 여학생들이 쑥갓과 쪽파를 다듬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1학년 여학생들이 여럿 앉아 있는 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학교 김장을 처음해 보는 이 친구들은 힘들지 않은 걸까요? 또 다른 한편에선 인턴십 준비에 한창일 5학년 언니들도 한자리에 앉아 다듬고 있었는데, 기자도 그 재미있는 이야기에 끼어들어 보았습니다.

안효원(1학년)-학교 김장 색달라요. 근데 힘들어요. 매워서 눈물이 나고요. 김치를 안 먹을 수는 없나요?!(웃음)

정기온, 이진주, 김단아, 김은수(1학년)-(다 같이) 김장 힘들어요~ 집에서 하던 김장이랑은 다른 게 밖에서 하니까 춥고 사람이 많아서 농땡이 피울 수도 없어요.

윤하 샘-아니야,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농땡이 피우기 쉽지~

박종은(5학년)-정말 토끼고(도망치고) 싶어.(웃음) 마지막이라 더 하기가 싫은 것 같아. 예전에 내가 어릴 때는 선배 오빠들이 쉬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젠 내가 그 선배 오빠가, 아니 언니가 된 거니까. 그래도 올해는 김장이 기다려지더라. 간디학교에서 유일하게 간디인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 함께 하는 게 김장이니까. 그리고 역시 김장의 묘미는 김장 욕하면서 하는 거 같아.(웃음)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식당 쪽에서 소리가 들리네요. 식당으로 가던 중, 세척실에 쪼그리고 앉아 파를 닦고 있는 두 여학생이 보이는군요. 찰방찰방 물 튀기며 파를 씻고 있는 두 여학생은 1학년과 5학년입니다. 그 옆에서 파를 씻고 계신 정인 샘도 보이네요.

-올해 김장 어떠신가요? 힘들진 않으세요??
조은솔(5학년)-5년 동안 해 오던 거라 이젠 김장이 쉬워요. 옆에서 같이하는 성민이가 잘 해줘서 힘든 점은 없어요.

박성민(1학년)-김장 힘들어!!! 같은 작업이 계속 반복돼서 힘들어.

정인 샘-태어나서 처음 해 보는 김장인데 재밌어요, 재밌어.(웃음)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매운 내가 진동을 합니다. 6학년 선배들이 능숙한 솜씨로 파를 자르고 있군요. 몇 년 동안이나 해 와서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손은 쉬지 않았고,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열심히 파를 자르고 있는 모습에 질문을 드리기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짱 샘-해마다 김장을 해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일이 수월해지고 빨리 끝나요. 이번에 만드는 김치가 맛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른 배추니까 맛있길 바라고 있어요.

이인지(6학년)-이번 김장이 학교에서 마지막

김장인데, 마지막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별다른 감회가 없어.(웃음) 김치가 맛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각자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준 덕분에 점심때가 되자 대부분의 일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첫날과 둘째 날 모두 대부분의 일은 오전에 끝이 나고, 오후가 되면 학생들은 기숙사로 올라가서 쉬거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놉니다. 아침에만 해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던 배추였지만, 전교생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해치운 것 같네요. 역시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게 정말인가 봅니다. 마무리까지 전부 끝내자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돌아다니네요.

저녁을 먹고 어둑어둑해지자 또다시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낮에 절여 두었던 배추를 건지는 작업을 하는 중이거든요. 바깥은 외등을 켜도 어두웠지만 고등부 학생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그 모습이 제법 비장해 보였습니다. 올해는 배추가 작아서 절여지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새벽에 내려와 소금물에 절여진 배추를 꺼내는 일을 전날 저녁에 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새벽일에 자원했던 고등부 학생들은 새벽에 할 일을 저녁 동안 끝내고 기숙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매년 새벽일을 하러 가기 위해 목도리와 모자, 바지 안에 타이즈와 추리닝 몇 벌을 껴입고 완전 무장을 했던 선배들의 모습을 올해는 보지 못했네요.

그 시각, 식당 안에선 건장한 남자 샘들 네 분이서 엄청난 양의 김치 속을 버무리고 계셨어요.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양념에는 우리가 미리 준비한

고추, 마늘과 젓갈, 찹쌀풀 등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물론 다 좋은 먹거리로요. 다 버무려진 양념은 하룻밤 동안 숙성시켜 이튿날 배추 버무리기 작업에 쓰인다고 하네요.

둘째 날

첫날 버무리기 준비를 전부 끝내고, 둘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내려와 아침을 먹고 나자 모두가 김치 버무리기 준비에 열심히 움직입니다. 버무리기는 식당에서 이루어지는데, 전교생이 한꺼번에 버무리기엔 식당이 작아서 오전 시간을 나누어 두 팀이 버무리죠. 식당은 책상이 전부 치워지고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전날 절여진 배추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드디어 김장의 꽃, 버무리기 작업이 시작되는군요. 배추를 창문으로 들여오는 동안에도 숭숭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운데 바깥에서 배추를 옮겨 주는 학생들은 얼마나 추울까요? 바깥의 학생들은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정말 열심이었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기자의 질문엔 열심히 답해 주었습니다.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계속해서 배추를 나르는 학생을 따라 기자도 이리저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김장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문의겸(5학년)-김장은 항상 즐거워요. 다만 열라 추워.(웃음) 학생들이 김장을 잘 하니까 올해 김장 김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학기 농사 작업장을 통해 모종부터 시작해서 배추를 길렀는데, 그 배추로 우리가 김치를 만들어 먹으니 놀랍네요.

-이제 6학년이라 학교에서 하는 마지막 김장인데, 어떠신가요?
이주호(6학년)-큰 감흥은 없고, 마지막이라 그런지 일을 많이 안 시켜서 좋아요. 올해 김치는 제가 해서 맛있게 될 것 같아요.(웃음)

절여진 배추가 무거울 텐데 남학생들은 번쩍번쩍 들어 나릅니다. 이렇게 듬직한 일꾼들이 있어 참 든든하네요. 배추가 들어오고, 식당 안에서 버무리기 작업도 함께 시작되었죠. 학생들은 고무대야 한 개마다 팀을 이뤄 앉아서 버무립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버무리는 게 서툴기는 하지만,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요령이 생기는지 잘하는군요. 열심히 버무리는 학생들 사이에서 양념과 배추를 배달해 주는 학생들도 아주 바쁜데요. '여기 배추 주세요~', '여기 양념 좀!' 배추와 양념을 주문하는 학생들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도 붙고, 재미도 붙습니다. 기자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지나다니며 얻어먹기도 하고, 즐겁게 인터뷰했습니다.

-첫 김장인데 어떠세요?
김가람(1학년)-색다르지 않아요. 이전의 학교에서도 김장을 해 봤거든요.^^
하늘찬(1학년)-김치 버무리면서 하나씩 뜯어먹는 게 김장의 재미인 것 같아요.(웃음)
(직접 뜯어먹으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1학년 남학생들 사이에서 어머님 한 분이 눈에 띄네요. 올해 김장에는 유난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서 함께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학교에서

하는 김장은 집에서 해 오시던 김장하고는 무엇이 다른지 여쭤 보았어요.
1학년 이시은 어머니-전 김장이 처음인데요?(웃음)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하는 것도 처음이고 아들, 딸이랑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저희 집엔 딸만 둘인데, 이렇게 아들내미랑 김장하면서 꿈을 이뤘어요.(웃음) 그리고 김장은 아주 바람직한 좋은 일이에요. 꼭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웃음) 올해 김치는 맛있을 것 같아요. 색도 예쁘고.(웃음)

-엄마 아빠를 따라온 1학년 시은이의 동생 하은이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시은이 옆에서 마이쮸를 먹고 있었는데, 하은이에게도 물었습니다. 하은아, 김장 어때???
이하은(8살)-(김장 어때요???) 쪼끔 좋아. (김치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김치 먹어 봤는데 조금 맛있어. 조금 매워.(웃음)

-간디학교의 김장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군요. 자리를 옮겨 간 곳은 청일점이 돋보이는 대야였습니다. 이 팀에도 부모님 한 분이 계시네요.
5학년 노희재, 2학년 노영빈 어머님-예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김장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김장을 따로 해 본 적은 없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먹을 김치를 스스로 담가 보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잘 안 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김장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요. 영빈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내가 김장해 줄게.' 하더라구요.(웃음) 김장 진행 과정을 학생이 겪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양지훈(3학년)-제가 이 버무리기 팀에서 청일점인데, 이렇게 예쁜 미인들과 함께하니 김장할 맛나네요. 미스 김치녀(웃음) 사이에서 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장의 묘미는 역시 다 같이 모여 앉아 떠들고, 힘들 때 먹여 주는 거죠!

역시 버무리기 시작과 동시에 배춧잎을 뜯어먹는 학생들의 소리도 함께 들리는데요. '아~' 서로에게 김치를 먹여 주는 모습이 참 화목해보이지만, 역시 매운 양념을 가지고 서로를 골려 주는 장난도 함께 등장합니다. 매년 김장 때마다 보이는 익숙한 풍경이죠. 이 대야의 1학년 여학생들은 계속 먹기만 하는데, 배추를 버무리긴 하는 걸까요??김치가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겠죠.
-얘들아, 김치 맛있니??

기온-올해 김치는 양념이 잘 되어 맛있어요. 처음 하는 학교 김장인데, 먹는 게 가장 재미있어요.(웃음) 올해 김장 김치도 잘 될 것 같아요..

-대야에는 두 명밖에 없지만 속도가 다른 대야 못지 않네요. 두 분 다 학생이 아니시군요.
현숙 샘-김장을 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옛날엔 손 샘, 태 샘 사모님이랑 배추를 자르면서 손이 동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올해는 배추가 작고 못생겼지만 맛있는 것 같네. 애들도 열심히 하고.

4학년 김종화 어머니-여태까지 매년 김장 새벽반 일에 함께했어요. 새벽일을 하면서 다른 학년 학생들과 졸업생들하고도 친해졌고. 우선 종화가 학교를 다니는 6년 동안 새벽반하려고요.(현숙 샘-

그럼 종화 졸업하면 안 올 거야?)(웃음) 우선은 6년 동안 새벽반에 오는 게 목표에요.(웃음) 간디학교의 김장은 준비 과정부터 축제 같아서 좋아요.

-아주 큰 대야에서 후조 샘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네요.
후조 샘-지금 학교 무로 알타리 무 김치 하고 있어요. 여기엔 표고버섯, 약초, 북어 대가리 달인 물을 넣고 지역 농산물을 쓰죠. 요번에 학교 배추 작황이 안 좋지만, 아이들이 너무 잘해 주고 특히 조리사 샘들이 수고가 많으세요. 물론 게으름 피우는 학생도 있지만, 다 너무 잘해 주어서 정말 축제 같네요.

벌써 11시가 되어 식당에 있던 학생들이 나가고, 다른 팀 학생들이 들어와 그 자리를 메꿔 다시 버무리기를 시작하네요. 1,000포기나 되는 어마어마한 배추도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점심에 나올 수육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최소은(4학년)-어제 저녁에 일을 하고 오늘은 늦게 내려왔는데 아직 배추가 남아 있어서 하고 있어요. 학교 김장을 맞이할 땐 귀찮고 옷 버릴 걱정이 들지만 재밌어요.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쉬운 것 같구요. 버무릴 때 대야 하나에 옹기종기 모여 버무리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1학년 이시은 아버님-이런 김장이 처음은 아니지만, 우리 간디 식구들과 얼굴 맞대고 함께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축제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은 구경만 하는데, 김장은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점심에 수육과 막걸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중입니다.(웃음)

-역시 수육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저 한 명이 아니었네요. 또 다른 한 편에선 얼마 전 논문의 여정을 마친 3학년들이 버무리고 있군요.
안현선(3학년)-김장 안 좋아요.(웃음) 아니에요, 김장 좋아요. 1학년 때는 김장을 하다 옷이 다 젖어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3학년이 되니까 재미는 덜하지만 더 수월하네요.

강도운(3학년)-김장의 묘미는 너(기자) 먹이는 거야.(웃음) 김장은 힘들지. 김장을 생각하면 심란하지만 1년 내내 우리가 담근 김치를 먹을 거라 생각하면 뿌듯해.

5학년 노희재, 2학년 노영빈 아버님-김장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에요. 희재 졸업 전에 꼭 한 번은 와 보고 싶었는데 재밌어요. 이전 시간엔 배추를 날랐는데, 버무리기를 해 보니까 버무리기가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웃음) 김치도 맛있을 것 같네요. 내가 해서…(웃음) 김장도 김장이지만 사실 수육 먹으러 왔어요!

4학년 김수용 아버지-김장하러 처음 왔어요.(재밌으세요?) 뭐 재밌어.(웃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학교 김치가 맛있는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맛있었던 건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김치를 담그는 건 처음인데, 전 버무리기는 전문적으로 해요. 어릴 때 어머니가 김장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버무린 김치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SK
FILA

RICHARDS
2

걸까요? 식당 복도 쪽에선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고무대야에 김치를 넣고 어디론가 옮기는데, 바로 소강당으로 가는 길목의 저장고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먹을 김치를 보관해 주는 거였군요. 손 샘은 열심히 김치를 대야 안에 넣고 계시네요.

손 샘-학교가 생기고서부터 김장은 매년 해 왔죠. 올해도 잘 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요. 작년엔 정말 바빴는데. 꼼꼼하게 버무려서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학생들이 김장을 통해 다 같이 힘을 모아 1,000포기를 담그면서 '뭔가 되는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흐르자 버무리기의 열기는 사그라드네요. 이젠 마무리 분위기인데, 이 와중에도 묵묵히 남은 배추를 버무리고 계신 윤하 샘이 보이는군요.

윤하 샘-올해로 김장을 아홉 번째 해 보는데, 김장을 하는 학생들이 귀찮아하지 말고 축제로 즐기길 바라요. 함께 일하고 서로 먹이는 게 재미죠. 여럿이 함께.

그렇게 마지막 배추까지 김치로 만들고 나니 우리가 김치를 버무린 자리엔 배추 쪼가리와 양념들만 남았습니다. 이젠 뒷정리가 남았죠. 바깥 정리, 물청소, 식당 뒷정리 등 각자 맡은 일을 하러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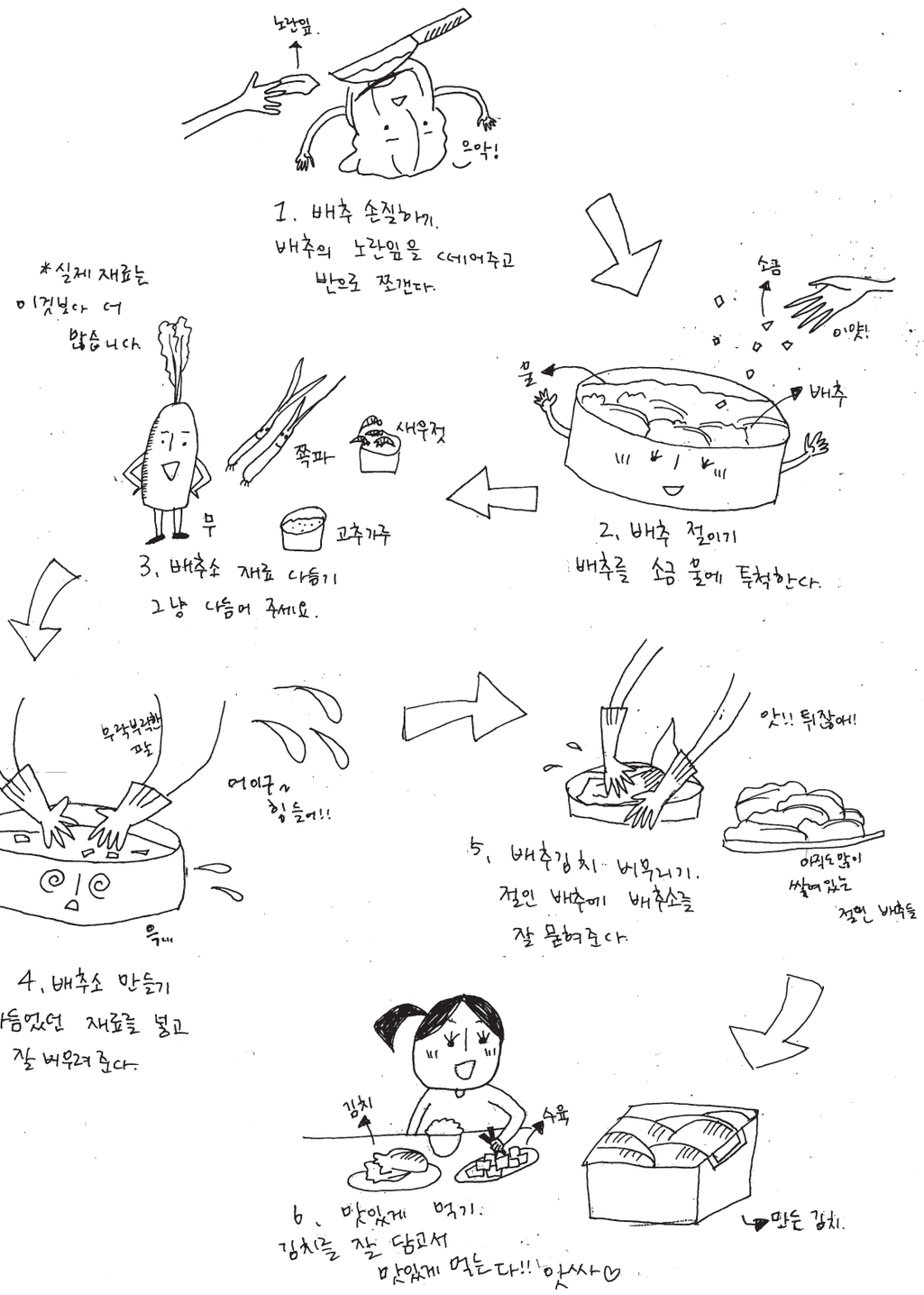
뒷정리까지 끝내고 나자 김장 김치와 맛있는 수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달려와 줄을 서니 어느새 식당 문 밖까지 줄이 늘어지네요. 고된 노동을 마친 후에 먹는 수육이니 그 맛이 배가 되겠죠. 이렇게 간디 김장 날에 빠지지 않는 수육, 전통처럼 김장 날엔 수육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영양사 선생님이신 후조 샘께서는 '김장을 하나의 축제로 보고 다 함께 수고했다는 의미로 수육과 액을 막아 주는 팥 시루떡을 먹는다.'고 하시면서 '김장이 나눔과 섬김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특히나 올해는 학교에서 기른 돼지로 수육을 만들어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수육을 먹으면서 2012년 김장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장 축제는 몸은 고단해도 가장 풍요로운 축제임은 분명한 것 같네요. 아직까지 학생들에게 김장이란 하기 싫고 귀찮고 힘든 일로 다가오지만, 앞으론 '김장 축제'라는 말에 걸맞게 김장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지훈 학생의 말처럼 '미스 김장녀 선발대회' 등을 개최해 보아도 재밌지 않을까요? 이틀 통안 김장 축제를 즐기느라 고생한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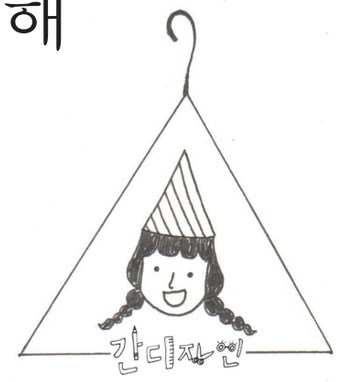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긴 간디학교의 김치, 정말 맛있겠죠? 🐰

김장담그기

그림 • 이가원 기자(2학년)



고립이 아닌 자립을 위해



김민석 기자(1학년)

이번 '우리끼리' 꼭지에서는 가을 축제 때와 기말 축제 때 간디 티를 팔았던 '간디자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간디자인'은 이번 학기에 새로 생긴 '창업 프로젝트'인데, 졸업을 하고 스스로 자립을 하기 위해 연습해 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창업 프로젝트에 관한 인터뷰는 간디자인 담당 샘이신 김현숙 선생님과 했습니다.

Q. 고등부에서 진행되는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여러분들이 학교 테두리 안에 있다가 졸업을 하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전부 다 경쟁하는 사회니깐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워 온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친구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연습도 해 보고, 또 만약에 돈을 번다면 어떻게 벌 것인지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인지? 모의 실험 느낌의 프로젝트예요.

Q. 창업 프로젝트와 고등부 작업장의 차이점은?

A. 창업 프로젝트는 기획부터 시작해 만들고 판매까지 하죠. 자기가 사장이 되어서 전체를 운영해 보고, 가격도 스스로 결정해 보고. 어떻게 팔 것인지 고민해서 진짜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고등부 작업장은 할 것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작업장도 계속 발전해서 생협이나 조합의 형태까지 갈 수 있죠. 하지만 아직은 작업장에서는 전체를 운영하진 안 잖아요. 그런 게 다른 거 같아요.

Q. 창업 프로젝트로 간디자인을 하게 된 계기는?

A. 제가 학교 수업으로 옷 만들기를 하니까 옷하고 가까운 것도 있고, 기존의 학교 티는 '너무 안 예쁘다.', '글씨가 써져 있어서 창피해서 못 입겠다.' 그래서 잠옷으로 입는다는 그런 불평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면 제대로 된 걸 한 번 해 보자, 그리고 아이들의 솜씨가 묻어 있는 간디스러운 옷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간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Q. 처음 해 본 창업 프로젝트를 평가한다면?

A. 기말 축제 때 팔 후드티가 아직 안 나와서 간디자인 안에서 평가를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재학생들이나 졸업생이 모여 가지고 스스로 자립해 보는 프로젝트였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샘 중심으로 가지는 것, 원래 목적에 있던 주체적으로 해 보는 것들이 역할 분담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어서 아쉬웠어요.

Q.계속 자립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간디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생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나요?

A. 그래서라기보단 막상 졸업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업장을 하지만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막막한데… 그래도 간디에서 6년 동안 알게 모르게 배운 것들과 표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번 펼쳐 보자, 펼치면서 밥 먹고 살 수 있을지 실험해 보자!' 이런 의미인 거 같아요.

Q. 창업 프로젝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A.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 같아요. 도자기 굽는 친구들하고 도자기를 구울 수도 있고, 뭐든 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이면 그 친구들과 함께해 보는 거니까 소재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Q. 한 학기 동안 간디자인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한 마디씩 말씀해 주신다면?

A. 우리 깡지 샘(제천간디 졸업생, 옷 만들기 보조 교사)이랑 햇님이랑 지성이랑 그림 그리고, 또

그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작업해 나가면서 매일 만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불평 없이 열심히 같이한 것에 대해 고맙고, 그리고 처음 하는 창업 프로젝트가 쉽지 않은데 첫 창업 프로젝트를 함께해서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신 김현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인터뷰는 창업 프로젝트로 옷을 직접 제작에 판매까지 하는 '간디자인'을 더 깊숙이 알기 위해 간디자인의 사장인 신지성(5학년, 여) 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Q. 멤버들을 소개해 주세요.
A. 내가 사장이고 회계가 깡지 샘, 햇님이(5학년, 여)가 홍보, 현숙 샘이 대장.

Q. 간디자인 시작에 앞서 투자자를 모은 걸로 아는데, 투자받는 방법은 어땠나요?
A. 처음엔 우리 돈으로 했어요. 간디자인 4명이서 얼마씩 거뒀고, 나머지 돈은 대자보를 붙여 학생들과 샘들 중에서 투자자를 구했고, 학부모님들에게는 간디 교육 공동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투자자는 학부모님들보다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투자 받는 돈은 정말 잘 썼어요.

Q. 제가 알기로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들었는데…?
A. 우리가 겨울에 후드티를 만들거든요. 후드티를 제작하고 판매까지 한 다음에 돈이 다 정리가 되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거예요.

Q. 간디티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A. 원래는 우리가 수작업을 하는데, 이번에 만들 후드티는 두껍고 까다로워서 공장에 맡기기로 했어요. 반팔티를 만들 때는 실크스크린이란 걸 하거든요. 실크스크린은 나무판에다 티를 놓고 그림을 한 장 한 장 찍는 작업이에요. 또 티에 들어간 비즈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한 거예요.

Q. 간디티를 디자인할 때 어떤 의미를 담으려 했나요?
A. 우리가 얘기한 건 간디학교가 주제였어요. 그냥

간디스러운 거…

Q. 디자인은 다 같이 하나요?
A. 디자인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들은 다 같이 모여서 정하고, 나랑 햇님이가 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다 그리면 샘들한테 보여드려서 고쳐야 할 거 말해 주시면 고치고.

Q. 간디티를 가을 축제 때 파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그때 내가 간디티를 안 팔고 회오리 감자를 팔아서 그때 상황을 아예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실크스크린 찍다가 물감 튀긴 거 빼고는 다 팔렸어요. 반응은 좋았어요.

Q. 그럼, 가을 축제 때 반응 말고 사 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그런 얘기는 잘 안 들렸어요. 있었다면, 간디티가 여름옷인데 약간 추울 때 팔아 가지고 사람들이 밖에서 못 입고 다녀서 아쉽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Q. 간디티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A. 간디티는 내가 만든 거여서 아쉬운 점은 없어요. 좋은 점은 예전 간디티보다 이번 간디티가 그림이 예뻐요. 그리고 예전 간디티들은 거의 '간디'라고 적혀 있어서 학교 밖에서 못 입었는데, 이번 건 밖에서도 입게 제작된 거라 좋고, 또 이번 반팔티 재질이 정말 좋았어요. 예전 건 빳빳했는데, 색도 다양해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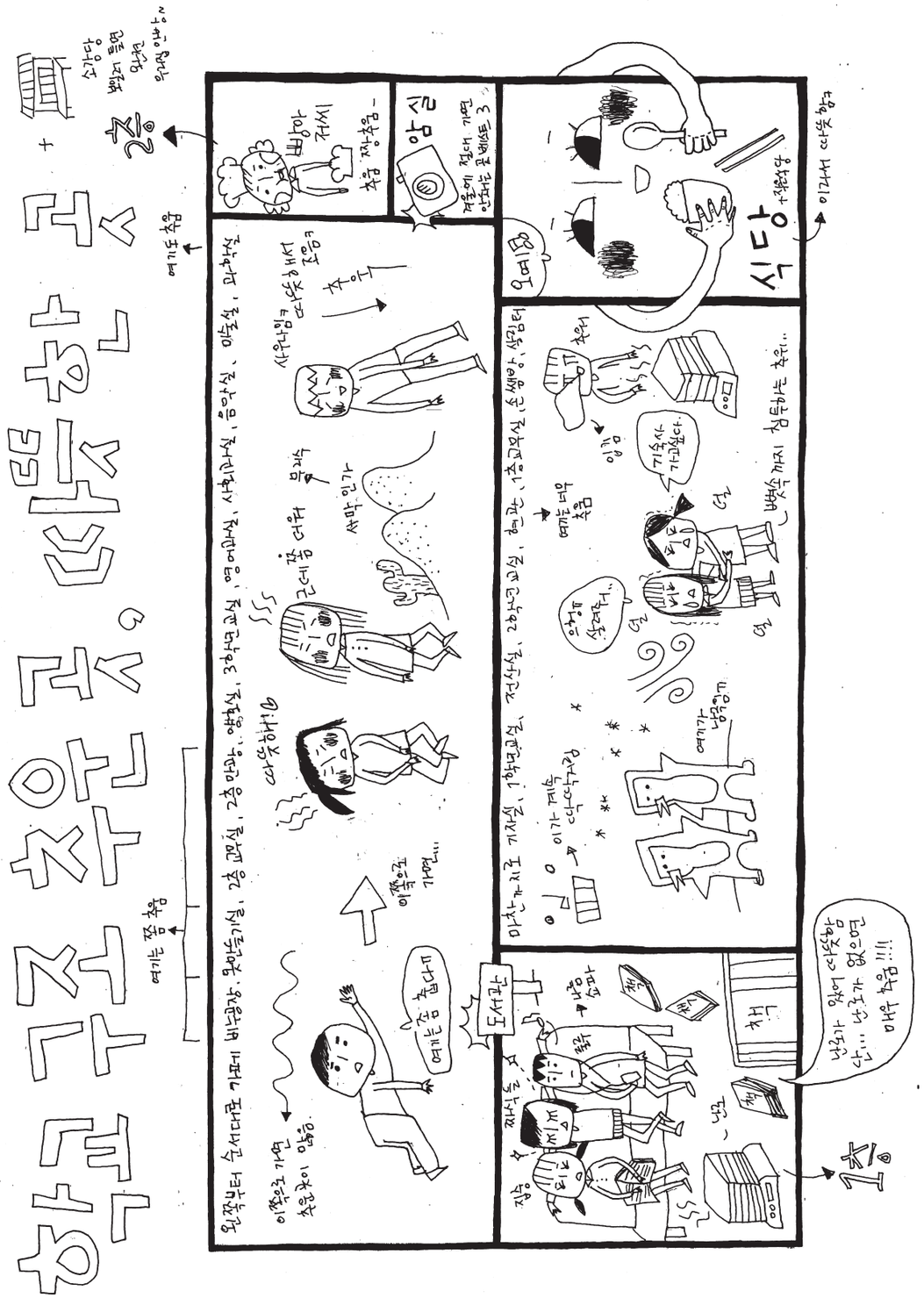
Q. 간디자인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기말 축제 때 후드티를 팔아 보고 재고가 많이

남으면 졸업식 때도 팔고 장학기금회 때도 팔아 보려고 해요. 반응이 좋아서 많이 팔리면 더 만들어 다른 축제 때도 팔아 보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S' 백화점 브랜드 입점!(웃음)

인터뷰에 응해 주신 신지성 님께 감사 드립니다.

학생들이 졸업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창업 프로젝트가 있어서 좋은 거 같습니다. 창업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의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창업 프로젝트인 간디자인도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이 좋은 반응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양한 창업 프로젝트가 나오면 6년 동안 배운 학교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졸업을 한 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창업 프로젝트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간디 만평 이기원 기자(2학년)


학교 찾아 떠나는 여행
여기는 좀 춥음
원짱부터 순서대로 가보니 바닥강, 옷보관실, 2층 교실, 2층 만남, 양호실, 3학년교실, 음악실, 사회과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이쪽으로 가면 소문자이 많음.
여기는 좀 춥다니
이쪽으로 가면...
다음 하나!
도서관
책상
책
의자
식당
오예!
이거서 따뜻함
겨울에 절대 가면 안되는 곳 베스트 3
쉼터
쉴 자리 없음-
뺑이 거서
사우나임? 더운데 내서 춥음?
추위
무서
사막인가
근데 꿈 더워
마찬가지로 기자실, 1학년교실, 전산실, 2학년교실, 체육관, 1층교무실, 운동장, 상담실
이가 계속 달달달거림
여기가 남향임
벽난로 있어 따뜻하고 나... 난로가 없으면 매우 추움!!!
벽난로 있어 따뜻하고 나... 난로가 없으면 매우 추움!!!
춥다
추워
얼음
가슴이 가득하다.
벽
얼음
얼음
벽
얼음
벽
얼음
벽

아이가 쉴 곳이 없어 도서실에서 자고 있는 일이 생기면 차마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학교에 쉴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원래 도서관을 강당에서 학교 1층으로 옮기며 딱딱한 독서실 같은 분위기가 아닌, 아이들이 편안하게 언제든 올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하셨지만, 지금의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도서관이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귀애 샘은 사춘기에 들어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학년이 섞여 있다 보니, 서로 요구가 달라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 고학년은 숙제 등 할 일 때문에 도서관이 조용한 분위기가 되기를 원하지만, 저학년은 전 학년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선배들과 놀고 싶은 사람이 대다수인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더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고학년이다. 귀애 샘은 저학년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 가며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하지만, 고학년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시며, 도서관을 이용할 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문화를 고쳐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그러고 보면 도서관에서 떠드는 것은 저학년만이 아니다. 따뜻한 2층 교실이 있는 고학년 역시 갈 곳이 없어 도서관에 자주 온다는 이야기다. 중등부가 바라봤을 때, 따뜻하고 공간도 아늑한 2층을 두고 왜 갈 곳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어 보면 고등부 역시 갈 곳이 없긴 마찬가지다. 5학년 노희재 양을 인터뷰해 보았다.

“고등부에 올라가면 멘토반이 되니까 2층 교실을 쓰잖아. 중등 교실들은 다 자기 책상이 하나하나 있어서 내 자리다 하는 안정감이 드니까 내 물건도 편하게 놓을 수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멘토 반은 교실에 책상이 다 붙어서 그런지 가방 놓고 다니기도 왠지 좀 그렇고, 내 공간이라는 느낌도 안 들고… 이 학교에서 내가 갈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2층 교실은 멘토반의 교실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수업을 하거나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등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된다. 중등 교실은 그 학년만의 교실로 인식되어 있지만 멘토반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노희재 양은 자신의 멘토반 교실인 사회과실에서 아침 열기를 한 이후에는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에 조용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 2층 교실을 헤매다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수업하는 등으로 인해 자리가 없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중등만 춥고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등 역시 갈 곳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파가 있고,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분위기의 도서관을 자주 찾게 된다고 말한다. 물론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곳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고등부도 중등과 다르지 않게 편히 쉴 곳이 없을 뿐더러 자신만의 교실이 있는 안정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공간의 문제점이 많이 보인다.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에서 100명이 생활하느라 그렇기도 하지만, 빈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공간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우리의 문화도 문제가 된다. 실제로 학교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시는 경수 샘을 만나 보자. 올해 태풍으로 인해 물이 새서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2층 동아리실, 관리를 한 지 너무 오래된 1층 교실들, 교실 난방으로 하기엔 너무 과한 손실이 이어지는 2층 교실 등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말해 주셨다. 경수 샘은 공간을 관리하고 고치는 것은 도와줄 수 있지만,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계획해서 꾸미고 연구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맞는 말이다. 지금 중등, 고등부에게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지금 학교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은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쉴 공간이 없는 것이 잔뜩 열이 나고 아픈 아이가 도서실 소파에서 쉬는 이유, 조용히 할 일이 있는데 갈 곳 없이 헤매는 이유, 볼 일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이유, 열이 펄펄 끓어도 도서실밖에 쉴 곳이 없는 이유니까 말이다. 먼저 도서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귀애 샘은 지금은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 국어과실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도서실을 강당에서 학교 1층으로 옮길 때, 원래 그런 용도로 국어과실과 도서실을 연결해 놓았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문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싶다. 또한 노희재 양은 2층의 고등 교실에는 자기 교실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문 앞에 팻말로 멘토반의 이름을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곤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쉴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경수 샘은 현재 고등과 중등이 섞여 있다 보니 고등이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고등부 시설을 이야기 중이라고 한다. 고등부 시설이 따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고등부 학습관이라는 것을 준비 중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등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보다 많아질 것이고, 고등 역시 고등만의 필요한 공간을 꾸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쉴 공간, 활동할 공간을 꾸려 나가기 한층 수월해진다. 무엇보다 많이 부족한 지금의 학교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최대한 활용하며, 춥고 피곤한 겨울날, 갈 곳 없는 공강 시간에도 편안히 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기원 기자(2학년)

11월

높고 높은 가을 하늘!!~

오늘은 아으! 추워 ㅠㅠ

Sun	Mon	Tue	Wed	Thu	Fri	Sat
꽃 감!	잇짜! 홍시! 달라 창문 철퍽 헐...	웩! 더러워!! ㅠㅠ	흥얼흥얼 팔도 어무스팀	1 노작의날 고추 닦기	2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입국!!	3 잇짜!! 가정학습 시작
4 가정학습이다아—	5 와하하하 나아아아하—	6 와아	7 우후훗!	8 갈갈갈 하하하	갈라 오빠 춤춰 스타일 징— 쿵덕쿵 펭	10 제천 학생의날 솔외바락공연
11 안녕 가정학습 끝	12	13 첫눈	14 인턴쉽 게임	15	3학년 소풍	17 다녀가고 싶다 1학년 소풍, 5학년 파자마파티
18	19 1차유세	20	21	22 2차유세 2차유세입니다 사람이 에워싸다	23 김 to the 배추! 눈리 빵자페! "짙은 음악회" 양양	24 장!! 고추! 햇밥 7000원!
25	26 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 흠 엥?	27 학생회장 투표일 투표함	28 필리핀 발표! 프레이!	29 문화의 밤!!! 염쟁이 유씨!	30 6학년!!! 포트폴리오 전시!!	

12월

위위 슈퍼 메리 크리스마스!

춥다!!

방학이다! 와

Sun	Mon	Tue	Wed	Thu	Fri	Sat
데굴 데굴	오!! 꽤 크다!	헐...	에이취!! 아 추워	팩!! 꼴 퍽! 아악!! 감속구!! 직구!!	끼스 받아라!	1 와아 교과발표회 와 기말축제
2	3	4	5 New!! 학생회 첫 집행부회의	6 New 학생회 첫 가족회의 헐! 김장	7	8 조어식 졸업식 안녕! 잘가—
9 방학식 방학!!	10 나는 기자다 우하하하핫 일상다반사 연수 시작!	11 찰칵!! 찰칵!! 엣헴	12 ?과연.. 빠네도 역을 거다!!	13 집으로 가아!! 일상다반사 연수끝	14 안녕하세요!! 신입생 겨울캠프 시작!	15 장학기금 마라톤 홍대 공연
16 기대돼 신입생 겨울 캠프 끝	17	18	19	20	21	22
23 /30	24 /31	25 크리스마스!! 과연! 누굴까	26	27 아.. 추워 얼어	이글루!!!	

안효원 기자(1학년) · 장우정 사진 기자(2학년)

11/1 노작의 날 고추 닦기

이번 노작의 날에는 김장 대비 고추 닦기를 했습니다! 고등부가 종주 산행을 간 사이 중등부끼리 얼마나 열심히 고추를 닦았는지. 덕분에 이번 김장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1/1 문화의 밤 흥얼흥얼 팔도 어쿠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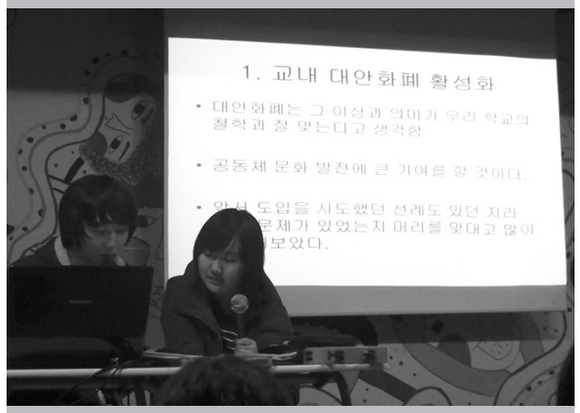
'흥얼흥얼 팔도 어쿠스틱'은 한 달에 한 번 서울을 벗어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뮤지션을 만나 그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젝트예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빛나고 특별하고 자기만의 꿈이 있고 자유로운 인디밴드들을 영상으로 알리려는 산뜻한 프로젝트입니다. 대구에서 오신 밴드 '건훈씨'와 '도노반의 제3행성'의 공연은 정말 신나고 말 그대로 흥얼거리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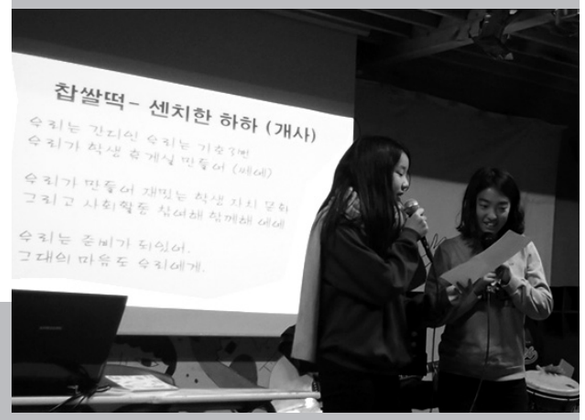
11/13 인턴십 계획서 발표

5학년들이 인턴십을 나갈 차례입니다. 5학년 대부분이 인턴십 준비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학기 동안 몸 건강히 다녀오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 모두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각자 원하는 곳으로 가서 열심히 배우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11/19, 11/22 학생회장 후보 1, 2차 유세

2012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2학기 말이 되어 세 팀의 학생회장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11월 셋째 주 월요일, 목요일에 후보자들의 1, 2차 유세가 있었답니다! 1차 유세에서는 팀 별로 신나는 노래나 랩 가사에 후보자들 각각의 공약을 넣어 유세를 하기도 했고, 2차 유세 때에는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패러디하여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





11/23, 24 김장

드디어 올해의 김장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역할을 나눠 열심히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의 기본 단계인 파 다듬기, 배추 절이기, 무 씻기 등등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양념을 버무리는 일까지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김장 덕분에 내년에도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을 듯합니다. :-)

11/24 누리빵 카페 작은 음악회

덕산의 누리빵 카페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간디학교의 학생들이 오프닝 무대를 하고, 메인 무대에서는 가수 양양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간디학교와 덕산의 학생들도 오고, 마을 주민 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모두 흥에 겨워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효원 (1학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기자 생활을 했네요. ㅎㅎ 연수도 와방 재미있었고요, ㅋㅋ. 제가 벌써 1년차 사진 기자가 됐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민석 (1학년)

이번 호는 인터뷰 분량이 잘 안 나와서 걱정했는데 ,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온 거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빨리 기자증이 나오면 좋겠네요.

김은수 (1학년)

이번 기사는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청탁을 맡아서 너무 날로 먹은 것 같아요. 다른 기자들에게 좀 미안하네요. ㅎㅎ 내년부터는 2학년이니까 선배답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상다반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손채은(2학년)

벌써 2학년의 마무리네요ㅋㅋ. 으아, 가을 호가 밀려서 이렇게 겨울 호도 밀리게 되다니… 저번 가을 호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만 기자 후기도 못 쓰게 됐네요.ㅠㅠ 정환 샘, 앞으로는 그냥 제가 쓰게 해 주세요!! 이제 봄 호로 만나는 건 제가 3학년이 되는 나이에 만나겠네요. 진짜 시간 빠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2013년에 만나요! 제가 기자 손채은(3학년)이 되겠네요.

장우정 (2학년)

이번 가을, 겨울 호가 평소보다 늦어진 것 같네요.ㅠㅠ 심지어 지금 기자 후기를 방학하고 한참 지나서 쓰고 있어요…! 편집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ㅋㅋㅋ 겨울 호 하면서 기말이라 바쁜데 글까지 쓰느라 기자들 고생 엄청 많았고, 사진 기자도!!ㅋㅋ 효원아, 수고했어.ㅋㅋ 그리고 가원! 무 뽑기 사진 찍을 때 투덜거리면서 우박 안 맞게 우산 씌워 줘서 고맙다.ㅋㅋㅋㅋ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김예림 (2학년)

ㅋㅋ…사설은 진짜 함부로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모자란 능력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네요. ㅠ.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수시로 찾아가서 찡얼거린 저 때문에 하한 오빠랑 정환 샘 고생했어요! 으아… 이번 호에서는 씻을 수 없는 창피한 과거를 많이 남겼어요. 다음엔 더 잘해 볼게용. ㅋㅋㅋㅋㅋㅋ 다들 이번 호 너무 잘 썼고, 수고했어요~!!

이가원 (2학년)

와! 이번 호가 2012년 마지막 호입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겨울 호!! 일상다반사에 들어온 지 아직 2년째지만 점점 많은 《간디인》을 만들수록 노하우가 늘어 가는 느낌입니다.ㅋㅋ후훗! 이렇게 계속 스케줄러를 완성하다 보면 결국 달력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하하하.
일상다반사 부원들 모두 모두 수고 많이 했고, 내년에는 더 파이팅합시다!! 오 예!~ :-D

최형규 (2학년)

이번 호는 인터뷰 글이라 쉬웠지만, 다음 호는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ㅎㅎ

하한 (3학년) 편집장

모두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만큼 알찬 겨울 호가 나올 것 같아요. 항상 노력하는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 별 (3학년)

겨울 호 기사를 쓰면서 많은 사람에게 참 미안했어요. 가을 호 때도 마감지키지 못해서 많이 반성했다고 생각했는데, 겨울 호는 제가 생각해도 책임감이 없었던 것 같네요. 저와 제 기사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편집장 하한이와 정환 쌤 그리고 다른 일상다반사 부원들에게 많이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기자후기'에 미안하다는 말 쓰지 않을 수 있게 마감도 빠릿빠릿 지키고 글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2013년엔 더 열심히 할게요!!!!!

최햇님 (5학년)

이번 호는 제가 일상다반사 기자로서 참여한 마지막 소식지네요. 활동하면서 바쁜 와중에 기사 쓰느라 편집장하느라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많이 부렸지만, 그런 만큼 일상다반사는 저한테 있어서 애착이 컸던 소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니 무지 섭섭하네요ㅠㅠ! 그래도 전 영원한 일상다반사 엘리트 기자!!!! 모두 정말정말 고마웠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정환 쌤, 저 같은 망나니 투정 다 받아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ㅋㅋㅋㅋ 싸랑합니다. 일상다반사♥ 쎄굿빠!!!

임소현 (5학년)

제가 일상다반사에서 작업한 마지막 호를 내네요…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스스로 모여서 소식지를 만든다는 뿌듯함에 계속 일상다반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찐한 감동만큼 겨울 호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ㅋㅋㅋㅋ 모두들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열의를 갖고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모두 인턴십 끝나고 봐요 ^-^

☆함께 배우며 삶을 나눌 선생님을 모십니다

제천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중고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제천간디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삶을 나눌 선생님을 모십니다.

교육 공동체를 넘어 마을과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를 꿈꾸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초빙 부문 : 교사 1명

□ 분야: 국어

□ 서류 접수 : 충원시까지

□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수업 계획서 / 경력 증명서(해당자)

- 자기 소개서 : 살아오신 배경과 가치관, 지원 동기, 대안교육에 대한 견해, 교육 철학 등
- 경력 증명서 : 대안교육 현장에 경험과 이해가 있으신 분
  모집 분야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
- 수업 계획서 : 개설 가능한 과목에 대한 한 학기 수업 계획서

* 간디학교 수업은 보통 90분이며, 대상과 내용에 따라 시간 조절도 가능합니다.
  중등과 고등이 있으므로 대상 학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간디학교의 수업은 통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나 분야와의 통합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생활을 하면서 학교 공동체를 넘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활동을 함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급여와 교사 복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류 접수(이메일): stonechr@hanmail.net (교사 대표 오필선)

문의: 043) 653-5791~2 / www.gandhischool.org / 010-2526-9819

*** 1차 서류 심사 후 면담 일정은 개인으로 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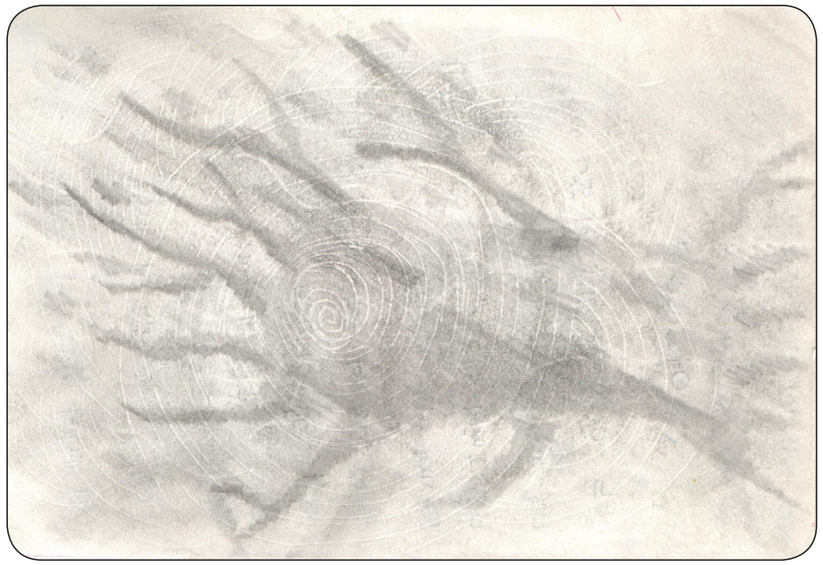
제천 간디학교

제천간디학교지 계간《간디IN》2012년 겨울 호(통권 26호) / 발행인 손진곤 / 발행 제천간디학교 / 편집장 김정환 / 기자(학년순) 홍지인, 임소현, 최햇님, 이인지, 최소은, 유현영, 한별, 허한, 권수정, 장우정, 이가원, 김예림, 손세은 / 편집 및 제작 새만화책 / 발행일 2013년 3월 25일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고리 92-3(우편번호 390-852) 전화 (043)653-5971~3 팩스 (043)653-5798 / http://gandhischool.org

간디IN

2012 겨울

더불어 행복한 사람 제천 간디학교 gandhischool.org



없는 나무

정지훈(5학년)

나는 아무런 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를 잡아 주는 땅도 나를 가려 주는 나뭇잎
나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흙먼지가 세차게 요동치며 나를 뒤덮는다.
하지만 나의 이 굳건한 모습을 보아라.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약해지고
처참히 무너져 가지만,
없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이 자리에 있노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바로 나 자신이다.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11일까지 간디학교를 후원해 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CMS 등으로 후원해 주신 소중한 마음들은 학교운영비(학생복지 및 학교시설)와 대안교육연대 지원금, 홈스쿨 네트워크 운영비, 다른 대안학교 지원금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썼습니다. 앞으로도 후원해 주신 분들의 뜻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479명 / 2,656건 / 36,549,000원

(주)두인기전 (주)파워텍 강경선 강나영 강민택 강상진 강성률 강수돌 강순자 강승구 강신현 강영상 강용중 강응택 강지혜 강창석 강태갑 경동하 고수원 고지철 공치성 곽영현 곽용호 구경란 구미숙 구순자 구자민 권숙영 권승호 권영숙 권지현 권호정 금상호 길주연 김갑유 김경민 김경민2 김경순 김경영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태 김구환 김극준 김금선 김기만 김남수 김남식 김대석 김도연 김란경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혜 김명희 김명희2 김문석 김문선 김문혁 김문환 김미옥 김미정 김미희 김배흥 김백영 김범린 김삼부 김상덕 김상봉 김상익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태 김성희 김송새봄 김수갑 김수진 김수진2 김승진 김양진 김영경 김영규 김영란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한 김영희 김예리 김옥주 김옥진 김용규 김용규2 김용남 김용섭 김용철 김유태 김윤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숙2 김은영 김은정 김장한 김재구 김재권 김정라 김정미 김정일 김종성 김종우 김종원 김종태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2 김진오 김진우 김진태 김창석 김태흥 김평호 김학규 김현 김현식 김현일 김현중 김현진 김혜림 김혜숙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2 김호연 김효진 김희교 김희균 남궁원 남용기 남웅우 남호섭 노경수 노경숙 노상규 노선영 노윤희 노희석 덕산LG주유소 도승연 라기호 라성호 류명옥 마미경 마석훈 명보산업개발 문성룡 문신호 문현주 문효선 민병선 박경현 박경호 박기석 박동순 박동필 박명란 박미나 박미향(일여스님) 박봉규 박성수 박성열 박영문(김숙정) 박영선 박영자 박용규 박인옥 박장식 박정기 박정림 박진수 박창순 박채영 박현준 박혜선 박호성 박환홍 박흥식 배승완 배영수 배필늠 백동민 백동훈 백명기 백미숙 변기영 변소영 빈중일 서진습 서홍원 선미식품 선영비 성상훈 성정미 성호종합주방 소언섭 손동훈 손병근 손영미 손정현 손주영 송윤순 송지은 신동운 신부순 신선영 신영희 신윤숙 신주영 신현덕 신현정 안두용 안미숙 안정환 안주연 안진희 안춘자 안항석 안효진 양병만 양상모 양서희 양수연 양신영 양정숙 양화숙 양후남 어통수산(주) 염계선 오강순 오명택 오병갑 오보환 오세익 오영진 오익문 오지혜 오현옥 오혜영 오호균 우기백 우성호 원정석 원현구 유경오 유성희 유수진 유연열 유운모 유원유통(농산물) 유인수 유일상 유준하 유증선 유지상 유춘자 유태영 유한목 유향옥 유현영 윤도희 윤민호 윤보영 윤숙경 윤양수 윤은주 윤한식 윤호선 은종복 이강인 이강훈 이경란 이경숙 이광일 이근행 이기하 이낙원 이도종 이명조 이명희 이무섭 이미경 이미경 이민주 이보완 이상복 이상훈 이석윤 이선애 이선애 이선재 이성록 이성호 이소안 이수경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2 이순화 이슬비 이승민 이승섭 이승연 이승욱 이승환 이양환 이예준 이오순 이요훈 이용수 이윤승 이은신 이은희 이재성 이재웅 이정남 이정석 이정선 이정섭 이정아 이정태 이정환 이종주 이종태 이종현 이주엽 이주은 이준용 이진석 이진우 이철희 이한진 이현주 이혜림 이호창 이홍구 이화숙 임남규 임반석 임병포 임성희 임영배 임영빈 임은숙 임진희 장규식 장미자 장성윤 장영순 장인욱 장일경 장진숙 장현섭 장희숙 전미영(손현석) 전병민 전병택 전수미 전영복 전완기 전종철 전주란 정경훈 정난주 정다운 정명숙 정문자 정문희 정병희 정상인 정석현 정성욱 정연경 정영수 정영숙 정영환 정이영 정재민 정재윤 정종미 정종숙 정지은 정태균 정한경 정흥순 정희정 조경선 조경숙 조경애 조경희 조규석 조동일 조미숙 조봉석 조상희 조수경 조숙자 조영도 조은아 조주환 조찬규 조창아 조철연 지연철 진상정 진성기 진영승 진은주 진정란 차영순 채상병 채서윤 채신자 천희진 최경아 최경우 최귀종 최도연 최문택 최상윤 최선자 최선주 최선희 최숙 최연호 최영남 최영준 최용 최은미 최인화 최재민 최재화 최재훈 최종현 최진웅 최해만 최홍석 하두철 하승렬 하영아 하태광 한광덕 한상철 한용택 한현 허미경 허성희 허영순 허인영 허재호 현은영 형제수산 홍금자 홍기봉 홍수연 홍원희 홍창식 홍현일 황국덕 황국덕 황둘남 황명숙 황선태 황인명 황인숙

*신영희(03 오은교, 01 오창민 어머니) 님이 현미 찹쌀과 백미 1가마니를, 김명철(03 김다은 아버지), 오보환(08 오세용, 09 오세영 아버지) 님께서 한방 감기약을 지어 보내 주셨습니다.

*주변에 CMS 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십시오. 기존 회원분들도 학교로 연락 주시면 추가 등록 없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학교 홈페이지의 'CMS 후원'란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전화 주시면 신청 용지를 보내 드립니다.

*이 밖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누락되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주소 변경, 후원 내용 변경 등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043)653-5791 / 고희라 010-2620-8891